

문 대통령 “디지털·그린 경제 앞서는 나라가 세계 경제 이끌 것”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 포럼 만찬...“한·스페인 힘 모으면 주인공 될 수 있어”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이제 협력을 잘하는 나라가 세계의 주인공이 되고, 디지털·그린 경제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라며 “스페인과 한국이 먼저 시작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개막 만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인협회 연례포럼은 스페인 국왕과 총리,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스페인 내 가장 권위있는 경제 행사 중 하나로, 올해는 ‘대재건-기업, 경제, 정치에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16-18일 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의 초청으로 포럼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대해 “코로나를 넘어 ‘대재건’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스페인과 한국이 함께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새벽 0시,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스페인 곳곳



에서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며 “반년 만에 방역 봉쇄령이 풀리고, 기뻐하는 스페인 시민들의 모습에서 세계는 희망을 보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코로나를 넘어설 것”이라며 “백신 보급과 함께 일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세계 경제도 반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위기 전 수준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비대면·온라인 전환이 빨라지면서 디지털 경제가 눈부시게 부상하고, 많은 나라가 탄소중립에 함께하며 친환경·저탄소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스페인 아젠다 2025’와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대규모 투

자에 나섰다”며 “한국 역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200억 유로를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의 힘을 모으고 투자의 효과를 높일 여지가 많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 국가이며,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래차·배터리·수소경제 등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넓혔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단에 위치해 거리가 멀지만 서로를 아끼고 협력하는 마음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칼럼] 권리와 책임은 병행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에 상응하는 휴식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당연한 일이었다. 시키는 대로 일하는 과거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권리도 있으며 휴일 근무에 대한 특별수당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일한 만큼 대우 받는 것에 대해 누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

문제는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경우 고용주의 판단은 각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험치는 다음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잦아들 재는 치수는 최저임금, 공휴일 확대 등 머리 숫자가 많은 근로자 중심으로 가서 얼마나 인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최저 임금에 대해 지금의 주체는 업주나 회사 측이지만 정하고 단속하고 생색내는 것은 정치와 행정이었다.

얼핏 보면 다수의 근로자 권익보호와 임금보장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지만 자영업자는 고용인원을 줄일 것이고 회사 측 또한 장애에 대한 방패를 준비하듯 나름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당장해야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문어가 제 다리 잘라먹는 격이다. 최저 임금 뿐일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휴일 확대 방안에 대해 누구의 발상이고 누가 수혜자이며 왜 추진하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릇 사람이란 앓으면 높고 싶고 다. 무릇 사람이란 앓으면 높고 싶고 다. 무릇 사람이란 앓으면 높고 싶고 다.

일한 만큼 대우받는 것이 정상이지 근로자의 권리만 주장하고 근로에 대한 기여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책임은 따로국밥 인가. 대체공휴일, 즉 공휴일이 주말하고 겹치면 대신 주중에 하루를 더 쉬는 내용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17일 오전 국회에서 재론됐다.

근로기준법하고 충돌한다는 정부 검토에 따라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논의했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답을 못 내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제정을 다시 논의했고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가 발목을 잡았다.

왜 그랬을까.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휴일법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도 최저임금 문제로 버티던 임장은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

아무런 어필까. 또 실업수당이나 기타 정책적 자금을 확보하여 풀면

해결될 수도 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 주 상임위 추가 회의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이 바뀐다고 고용의 주체도 법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경영 상황 또한 같이 바뀔 수 있을까. 물론 전혀 무관한 일이다.

한국의 사회적 상황상 법이 바뀌어서 쉬는 날이 더 생기더라도 마음 놓고 쉬 수 없는 노동자들이 상당하다. 그들은 어쩔 것인가. 대체공휴일이 되면 가장 먼저 관공서가 쉰다.

근무처의 상황과 무관하게 제때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야 쉬는 날이 많으면 좋겠지만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까지 덩달아 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3년 전에 일반 기업들도 공휴일에는 유급 수당을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마련된 바 있다.

이번에 대체공휴일이 통과 되면 약 15일을 더 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주말이랑 겹치면 다른 날 하루 더 쉬고 미국 공휴일처럼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처럼 휴일을 지정해서 쉬자는 것인데 해당되는 사람이야 출을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하는 짓이냐는 마음이 생긴다.

법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상은 약 300만 명. 여기에 가족들까지 합치면 위화감과 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셈이 된다.

약 84%가 수혜를 보고 16%는 제외되는 법안이다. 실제 현실은 코로나19이후 가뜰이나 어려워진 경기에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제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공휴일 보장은 남의 나라 일이고 연차제나 휴일 가산 수당도 누리지 못하는 형편이다. 특히 하루가 아쉬운 판매 공휴일이 늘어나면 월급 주려는 주체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인 것이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며 과거마냥 반공일이라 하여 토요일도 오직엔 근로하던 시절은 지났다.

하지만 일하는 만큼 지급하려는 주체가 지급할 인건비나 근무할 날 짜까지 정부가 간섭하고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권리만 추켜세울 뿐이 책임에 대한 여지는 책임지지 않는 것과 같다.

필자가 운영하는 매체 중 생활정보신문의 구인·구직에 대해 고객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해를 더 할수록 근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고용시장부터 월급보다 특정 기간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4대 보험에 대한 의무가입으로 각종 징수금이 증가하는 상황에 이를 기피하려는 사업자, 힘하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 위기가 역력하다.

실업률은 높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한 환경 속에서 이번 법안이 작용하는 사회적 부작용은 어쩔 것인가. 어떤 법안이든 우리나라 실정과 현실에 맞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이다.

덕암/김근식

18~59세 일반국민 2200만명 코로나 백신접종...3분기 계획 나왔다

고3 수험생·교직원·50대 7월부터 접종...40대이하 8월부터 사전예약 순서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올해 3분기 중 2200만 명 접종으로 9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인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신속히 완료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8월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비율 등 위험도를 고려해 50대 먼저 접종을 추진하고, 이어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을 완료해 일상회복을 본격화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중증 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예약과 접종기관 내원이 어려운 집중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자율접종 등으로 접종편의를 도모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8~59세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 계획인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이번 시행계획은 올해 초에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에서 제시한 접종원칙을 바탕으로 백신공급계획 등을 반영해 수립했으며, 지난 15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예약 증가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백신접종을 받지 못한 60대~74세 집중대상자에 대해서는 7월 초에 최우선으로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단은 30세 미만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 중 약 7만명 정도의 6월 미접종자도 사전예약을 받아 7월 초에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 3학년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별 예방접종센터 간 사전 조율된 일정에 따라 7월 19일 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고3 이외의 대입수험생은 8월 중 실시한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은 7월 중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며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도 사전예약을 거쳐 함께 진행한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연령별 위중증 비율 등 위험성을 고려해 50대는 온라인 사전예약을 거쳐 7월 26일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백신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해 1~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55~59세부터 시작해 50~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예약을 받는다.

40대 이하 연령층은 8월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역시 백신의 도입량 및 시기 등을 고려해 1~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본인 선택에 따라 일시와 기관을 결정한 후 접종한다.

이밖에 사회적·신체적 제약으로 접종 참여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에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추진단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보다 신속한 접종 및 접종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자체 자율접종과 사업체 자체접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7월 말 이후 백신 도입상황에 따라 지역별 자체계획에 의거해 필수 인력 및 고위험군 등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는데, 지자체 자율접종 지침을 참고해 시도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한 후 접종을 실시한다. 사업장은 종사자 접종편의를 위해 철거·자동차 등 주요 생산공장 중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서 50대 등 우선접종자의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8월 중 자체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약 76만 명의 접종자는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당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000회분이 6월 말 도입돼 2차접종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7월 이후 변경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대상에 대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사례나 연구결과 등과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접종 백신의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그 동안 외국의 교차접종 연구결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접종이 면역효과

최민식/기자

교육부, 2학기 등교 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고,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650,217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2021학년도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보통 응답을 포함하여 81.4%(매우 긍정 및 긍정 65.7%)로 나타났으며, 설문 대상별로는 학부모 90.5%, 교원

70.3%, 학생 69.7%로 나타났다. 등교 확대에 대비한 학교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직원 백신접종 추진(59.7%)’, ‘학교 방역지침 보완(45.4%)’, ‘급식 운영 방안 개선(41.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강화 대책 등을 포함한 2학기 전면 등교의 구체적 계획을 6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순창 섬진강 카누 무료체험 하러 오세요



부산 여·야·정, 이건희 미술관 건립 입지선정 공모 추진 공동건의문 체결

임형택 의원, 도심 흉물 화물터미널 공원, 주차장 만들자



부산시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현안과제의 공동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4일 11시 시청 팔마루에서 부산시-부산시의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이 참여하는 '현안 신속추진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어제(15일) 정부에 이건희 미술관 입지선정을 공모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최종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을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국민의 힘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의 미래가 걸린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의 한 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야·정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에 아낌없이 힘을 보태

겠다고 큰 뜻을 모았다.

특히, 여·야 두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 39명(국민의 힘 의원 3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을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정 모두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과 조당적 협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6월 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절차로 추진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가 문화

향유의 기회균등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힘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라 전체를 품격있는 문화국가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건희 미술관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치 의사를 밝히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유치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공모 절차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향후 부산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전략적 홍보 방안을 포함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남궁영기기자



남궁영기기자

임형택 의원은 6월 11일 제 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익산 부송동 화물터미널 전체를 공용주차장, 명품공원으로 조성하자"며 활용 정책을 제안했다.

부송동에 위치한 화물터미널은 1987년 조성 당시 도시 외곽이었지만 현재는 도심 한 복판이 되었다. 현재 물류 기능은 상실되었고, 수년 동안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도시 이미지 훼손, 주변 환경 피해,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도심 흉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임형택 의원은 "화물터미널은 개인 사유지이고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 가능한 준주거, 주거,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해 줄 경우 수백억 원의 특혜가 발생해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도내 유일하게 지정된 화물터미널로 용도폐지나 이전은 국토부와 전북도의 협의와 승인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제안했다.

단기 대책으로 20,000제곱미터(6,000평) 전체를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면서 "현재도 전체공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방치 폐기물 처리, 노면 포장, 재산세 면제 등 지원사업을 통해 소유주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익산시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여 특혜 소지를 없앤 후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익산시는 2009년 소각장이 들어설 소각장 옆에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부송동 지역은 2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등으로 지난 30년 동안 환경피해가 컸던 지역이고, 주거중심지 입에도 큰 공원도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형택 의원은 끝으로 "도심 한 복판인 부송동 화물터미널에 지상에 명품공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들이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수십년 동안 방치했던 도심 흉물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기를 희망한다"며 익산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승일기자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 (가칭)배곧대교 추진에 적극행정 촉구

경기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이 14일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과 면담을 갖고 (가칭)배곧대교 추진에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박춘호 의장을 비롯해 면담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이상섭, 오인열 의원은 시흥배곧지구의 발전과 시흥시 K-골드코스트의 성공을 위해 배곧대교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배곧대교를 경자구역 기반시설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항의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기도 도로정책과에 신청한 배곧대교에 대한 '시도노선 지정' 승인 역시 제3경인고속도로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보류되고 있어 후속 인허가 등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까지 승인을 보류한 법적 근거 제

시와 빠른 승인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수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는 경기도 사업이므로 배곧대교 또한 경기도 사업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춘호 의장은 "시흥배곧지구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골드코스트의 중심"이라 며 "인건경제자유구역과의 시너지를 통해 인천, 경기 서남권 일대가 향후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메카가 될 것"이라고 배곧대교를 경자구역 기반시설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정부기자



'숨은 일꾼'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 제1회 기초자치의정대상 수상 눈길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이 지난 15일 기초일보에서 주관하는 '제1회 올해의 기초자치의정대상'에서 '우수입법분야'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의정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내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일꾼분야', '공약이행분야', '우수입법분야', '우수입법분야' 4개 분야로 나뉘어 분야별 광역·기초의원 각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양평군 의원으로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며 사회·보건·복지 분야와 관계있는 20건 이상의 조례를 포함하여 2021년 5월까지 총 3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또한 회기 중 조례 제·개정 의 건의안, 결의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음은 물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

요 균형 전반에 대한 검토와 대안제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예산·인사·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제안과 의견제시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 수립과 입법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입법 분야에서의 군민 행복실현과 지방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22년간의 풍부한 사회복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복지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양평군 사회복지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였으며, 특히 지난 해 9월 양평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연구단체인 '행복한 복지정책 연구회' 위원장을 맡아 군민의 개별 욕구에 근거한 '맞춤형 복지정책 개선 및 사회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해 온 공을 인정받아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양평군 사회복지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복지향상을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혜원 의원은 표창을 수상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힘써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 의원으로서 군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은 물론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성일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평택시 시청로 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우/부회장 박복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요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남원시 TV

유아맘 : 대단하심...
벚꽃엔딩 : 맛집 오픈하셔...
찌니 : 남원의 맛~ 기대 됨!
공꾸는남랑 : 남원으로 가즈아!

영등포구, 온라인 자기소개서 특강으로 수시 완벽대비

영등포구가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2022학년도 대입 수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3일 '탁트인 자기소개서 1차 특강'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온라인 자기소개서 특강은 코로나 19로 인한 진로·진학 준비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시전형 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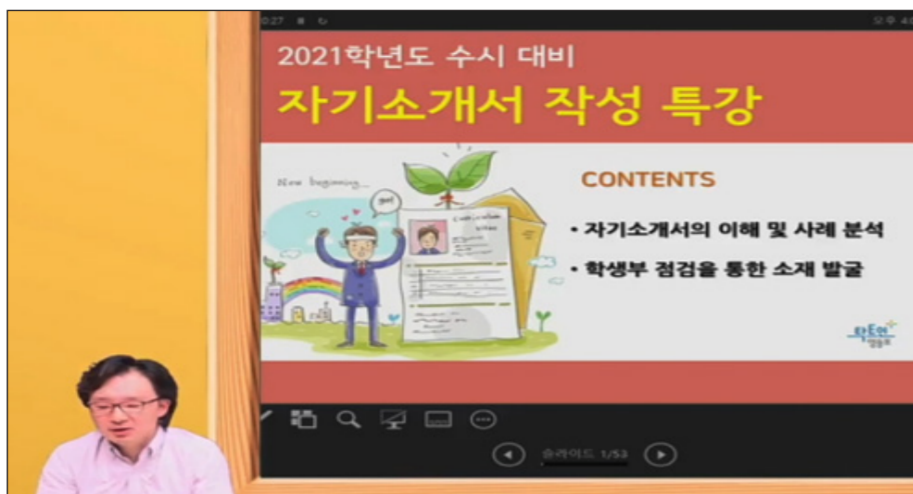
지난해 첫 특강을 실시한 이후, 수험생에게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은 물론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대입 입시 정보의 제공으로 수강생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올해 특강은 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시간과 일정에 제약 없이 각 가정에서 편안히 수강할 수 있도록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 2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며, 아깝게 시간을 맞추지 못한 신청자들을 위해 같은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1회 재방송한다.

특강의 대상은 대입 수시전형 지원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로, 학교생활 기록부 점검을 통한 자기소개서의 소재 발굴 및 선정에서부터 표현 요령, 전략에 이르기까지 자기소개서의 작성 전 과정에 대한 핵심 정보만 짜임새있게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강의내용으로 ▲1부, 자기소



개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사례분석 ▲2부, 자기소개서의 줄거리 만들기, 학교생활 기록부 점검을 통한 소재 발굴 및 선정 등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하여, 1시간씩 연이어 강의를 진행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는 오는 6월 22일까지, 영등포대 학입학정보센터로 전화하거나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인원제한 없이 신청자를 모집한다. 특강 교재는 라이브 방송 30분 전, 문자 링크를 통해 제공된다.

한편, 영등포대학입학정보센터는 2014년 10월 개관한 이후 학습 동기 부여,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입시 설명회, 학습법 특강, 1:1 개별상담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 코칭, 자기소개서 상담, 수시·정시전형 대비 맞춤형 개별상담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컨설팅'과 상담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컨설팅'이 신설되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자기소개서 특강이 수시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진학 상담과 학습 지원으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도봉구 14개 동(洞) 주민자치회, 온·오프라인 주민총회 개최

도봉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주민총회'를 올해 전 동(洞)에서 개최한다.

도봉구는 주민참여 정책의 일환으로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 권한을 갖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올해 도봉구 14개 전 동(洞)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민총회'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 단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한 생활문제 해결과 발전방안이 담긴 자치계획을 숙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다.

주민자치회 전환 시행에 따라, 올해 도봉구 각 동(洞) 주민자치회에서는 분과별 마을조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총회에 상정할 의제를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마을 의제는 '주민총회' 시 '주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민투표'는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區)는 마을 의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의 0.5% 이상이 참여하고 참석자 절반 이상의 의결으로 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도봉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대면 방식의 오프라인 주민 투표와 K-보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글 네이버 설문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후 온·오프라인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한 마을 의제의 우선순위는 동별 결과공유회를 통해 주민에게 공유된다. 결과공유회 또한 유튜브 온라인 생방송과 소규모 오프라인 대면 행사로 병행해 열리며, 오는 6월 18일 창2동을 시작으로 14개 동에서 각 동별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투표와 결과공유회 자세한 일정은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의 자치를 시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노

력이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자치회로 말미암아 정착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주민 대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봉구는 2017년 상문1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창2동 창5동 6개 동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창4동 도봉1동 도봉2동 3개 동, 2020년 12월 5개 동 상문2동 상문3동 상문4동 창1동 창3동까지 전(全)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다.

최광수/기자

성동구, 용답동 자치회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주민 문화 갈증 해소 나서

용답동 자치회관 원데이 프로그램 온라인 수강생 모집

면역력 높이는 여름 건강차 <장미청 & 비트차> 2021. 6. 16(수) 오전 10시~11시 *재료비 10,000원	에코 라이프! 목공소품 DIY <천공 데이블> 2021. 6. 22(화) 오후 3시~4시 *재료비 30,000원	헌책 활용! 북폴딩 <신기한 동물인형> 2021. 6. 29(화) 오후 4시~5시 *재료비 없음
---	--	---

수강신청: 용답동주민센터 2286-7523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자치회관에서는 이날 16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용답동 자치회관에서는 지난 2월부터 대면 프로그램을 중단한 자치회관

은 휴관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의 기회도 줄어들게 됨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에 나서게 되었다

'온라인 원데이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 운영, 이날 16일에는 '면역력 높이는 여름 건강차'라는 주제로 '장미청 & 비트차' 만들기를 진행하며 에스트로겐과 비타민 A, 비타민 C를 함유해 여성에게 특히 좋은 식용장미꽃을 활용한 '장미청'과 비타민과 철분이 많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트차'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22일에는 용답동 주민자치회 특화사업1)으로 진행되는 목공예 사업과 연계해 '에코 라이프! 목공소품 DIY'라는 주제로 '이동식 사이드 테이블'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목공 프로그램은 자동차 부품 도매상수백 곳이 밀집해 있는 용답동에 하루 1t 이상 소각 처리되는 폐팔레트를 업사이클 가구로 재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마지막 날에는 '헌 책 활용! 업사이클링 북폴딩'이라는 주제로 '신기한 동물 인형 만들기'를 진행한

다. 북폴딩이란 헌 책을 활용해 책의 내지를 접거나 오려서 이미지나 글자를 표현하는 기법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용답동 새마을문고 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종이동물 인형을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원데이 프로그램은 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며, 재료비만 수강자가 부담하면 된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용답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고, 수업 당일 Zoom 초대 링크를 통해 온라인 클래스에 입장하여 참여하면 된다.

차영수 용답동장은 "이번 자치회관 온라인 원데이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배움의 기회를 갖고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은평구, '은평배움모아' 모바일 앱 출시

은평구는 6월부터 모바일 앱 '은평 배움모아'를 출시하여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앱 출시의 구민의 모바일 학습권 신장 및 평생교육의 다양성 확보의 일환으로 누구나 회원가입을 통해 은평 내 학습정보를 푸시 알림으로 받을 수 있고, 수강신청 한번이면 이용자의 기호에 맞는 온·오프라인 학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도록 서비스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IOS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은평구, 은평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와 연동돼 은평의 다양한 소식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은평 내 다양한 학습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내 손안에서 볼 수 있는 만큼 구민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민의 학습권 향상을 책임지는 평생학습도시 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앱에 대한 문의사항은 은평

구청, 은평배움모아, 은평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순/기자



서초구, '2022년도 서초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2022 서초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2021년 6.07(수) ~ 7.16(금)

대상사업
2022년 서초구 예산 반영을 희망하는 생활공동체 주민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사업, 청년·청소년 사업, 사회적기업·협업재정·소통·주민참여예산

제안대상
서초구 주민 및 구 소재 직장인 모두

제안방법
구 홈페이지, 주민구청 및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작성: 서초구청 주민참여예산팀
공개방법: 주민참여예산포럼, 주민참여예산포럼,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4' 기획예산과, 각 동주민센터

문의
서초구청 기획예산과 02-556-6388, 각 동주민센터

서울 서초구는 7월 16일까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신청받는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주민이 직접 서초구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21년

도말 구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2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된다.

대상사업은 주민 선호도가 높은 생활공동체사업, 동별 현안사업 등 내년 예산편성 시 반영을 희망하는 서초구 사업이며, 서초구 주민이나 구 소재 직장인·학생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서초구 홈페이지를 통

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동 지역회의를 거쳐 최종 투표를 통해 9월경 확정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편성규모는 총 20억원으로 권역별로 배분하여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제안사업 공모를 통하여 생활공동체 주민친화 사업을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배달증가에 따라 늘어난 패이스팩의 분리 배출을 위한 패이스팩 수거함 설치, ▲양재천 LED등 설치 등이 선정되어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제안들을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서초구의 구정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 소식 전할 마을기자단 12명 모집

중화2동 '미인마을' 마을기자단 모집

중화2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마을기자단 12명 모집

모집대상	중화2동 주민
모집기간	2021. 6. 21(수) ~ 25(일)
모집방법	온라인(주민참여예산포럼) 및 현장(주민참여예산포럼) 접수
모집인원	총 12명 (지역별 3명씩)
모집분야	지역특성 이해, 기획, 취재, 편집 등

중랑구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진행 중인 중화2동 '미인마을'에서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마을기자단' 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화2동 '미인마을'(중화동 296번 지 일대)은 미소로 인사하는 마을이

라는 뜻으로,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상권이 침체되어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주민들이 뜻을 모은 결과, 지난해 도시재생 예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발돋움 단계이다.

마을기자단은 중화2동의 마을공동체 활동 및 도시재생과 관련된 소식을 직접 취재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기자단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중랑구 생활권자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미디어에 관심 있는 자 ▲월 1회 이상 정기 기획모임 및 취재활동이 가능한 자 ▲미디어교육 수강이 가능한 자이다. 기사작성, 사진, 영상제작 및 편집 등 3개 분야에서 4명씩 총 12명을 모집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를 중화2동 주민거점 '희망다락'(동일로 123길

13, 2층)으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30일 면접 심사가 진행되며, 7월 2일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기자단으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활동 전 분야별 미디어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콘텐츠 발굴과 글쓰기(8회), 사진촬영(6회), 영상편집 및 제작교육(10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료 후 연말까지 월 1회 마을소식지와 영상 제작활동에 참여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재생과 및 중화2동 주민거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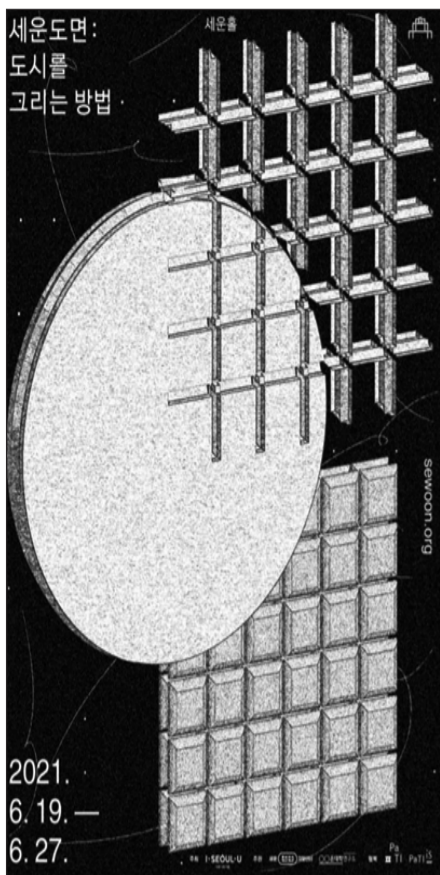
구는 기자단 활동에 더해 주민 거점공간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중화2동 주민거점 '희망다락'에서는 주민이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 문제를 의논하고 소모임, 노년층 교육 등을 진행한다.

류영기 중랑구청장은 "마을 기자단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변화를 기록하고 이끌어가는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성공적인 예비사업 추진을 통해 활성화 지역 선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서울시,세운상가일대 산업과골목풍경 담은

'세운도면展' 개최



로 삼아 주민들을 만나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시민들과 나누는 '세운은대학' 시리즈의 2021년 사업이다.

세운상가 일대는 기계금속, 공구, 조명, 인쇄 등 다양한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독특한 산업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볼 수 있는 도시구조가 현존하는 장소이다. 또한, 이곳은 현재 재개발과 산업의 변화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어서 도시 기록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 권민호는 기계와 도면을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주로 하며, 파주타이포그라피학과 일러스트레이션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 전시 기획자이기도 한 그는 세운도면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세운상가 일대를 관찰하고 수집해서 자신의 시선으로 이미지를 창작하는 것을 도왔다.

이번 세운도면 전시는 도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시도하고, 시민들과 교류하는 장을 마련했다. 친숙한 매체인 그리기 활동을 통해 세운상가 일대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록하며 도시를 경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읍지로는 오래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안료와 종이를 구입하고 액자를 제작하기 위해 찾던 미술인들의 시장이기도 하며, 여전히 50년이 넘는 안료가게가 읍지로 4가에 밀집해있다. 전시를 관람하고 관련 산업의 상점을 찾아보는 것도 전시의 작은 즐거움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작가들이 만든 이미지에 표현된 세운상가 일대의 풍경을 관람하고 읍지로·청계천 골목을 직접 거닐면서 이 지역 산업 현장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구로구, 직접 민주주의의장! 구로구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구로4동, 가리봉동, 개봉1동, 오류1동 ... 유튜브로 실시간 주민 참여 가능

구로구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4개동(구로4동, 가리봉동, 개봉1동, 오류1동)서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주민총회는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송출 시간은 개봉1동 6월 18일 오후 2시, 오류1동 6월 29일 오후 3시, 구로4동 7월 6일 오후 5시, 가리봉동 7월 7일 오후 5시다.

참여 주민들은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동 단위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예산, 자치계획을 공유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와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총회 전·후로 실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직

접 선정한 의제들이 최종 결정된다. 내달 6일까지 동별 여건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정책과 예산의 결정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달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구로를 위한 주민총회와 투표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는 2019년부터 구로4동, 가리봉동, 개봉1동, 오류1동 등 4개동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동 단위 자치계획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등 풀뿌리 자치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김미성/기자



마포구, 돌봄 공백도 결식우려 아동도 없는 '행복 마포구!'



마포구가 다음달 1일부터 결식우려 아동 지원사업을 통한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의 1식 단가를 7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식카드 이용이 가능한 식당을 10배 이상 확대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꿈나무카드는 2009년 도입한 아동급식카드로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포구에서는 현재 약 700명의 아동이 사용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액 단가 인상은 결식우려 아동에게 균형잡힌 건강한 한끼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지역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1000원을 인상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부터 기존 454개였던 꿈나무카드 이용가능 식당을 5747개까지 늘려 결식우려 아동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

용 편이를 증진시켰다.

그동안 꿈나무카드는 이용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등록 가맹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이 간편한 인근 편의점을 아동이 주로 방문하게 되고, 이로 인한 영양불균형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자치구와 꿈나무카드 제휴사인 신한카드와의 가맹연계를 통해 신한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모든 식당에서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이 개선됐다.

단, 유희음식점, 주점, 디저트카페 등 아동이 한끼 식사를 하기에 부적절한 곳은 제외된다.

한편, 구는 초등학생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방과 후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오는 28일부터 돌봄을 시작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2곳은 각각 공덕동과 아현동에 위치하며, 공덕동 '공덕 헤리지움 아파트'에 위치한 '마포구4호점 우리동

네키움센터 마을연계(공덕동)는 연면적 332.74㎡로 총 32명의 초등학생을 돌볼 수 있고, 아현동 '공덕 SK 리더스뷰' 단지 상가 내에 위치한 '마포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아현동)'는 연면적 243.67㎡로 총 30명의 초등학생을 돌볼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하는 2곳의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 마을건강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가이드 라인을 적용해 민고 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돌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아동급식카드 지원 역시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꿈나무카드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여름방학특강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창의미래교육' 학습자 모집

여름방학특강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 2021. 「온(On)동네 특화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창의미래교육' 학습자 모집

-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인공지능 SW코딩교육
- 4차산업 시대에 맞는 글로벌경쟁력 창의인재 만들기
- 초등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

수강안내

- 신청기간: 2021. 6. 22(화) 10:00 ~ 마감 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선착순 신청
www.ilec.go.kr - 평생학습프로그램 - 학부모교육
- 신청대상: 연수구민 학부모 및 자녀
- 신청인원: 프로그램 당 20명(10팀)
- 수강장소: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 강의실
- 수 강 료: 무료(재료 및 교재지원)
-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부(☎032-899-15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4차산업시대에 필요한 21세기 미래인재 양성교육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창의미래교육'을 7월 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연수구청 2021「온(On)동네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연수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부모와 초등자녀 20팀을 모집하며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를 전액 지원한다.

운영 내용으로는 초등 저학년(1~3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조봇과 킥

공까지 함께하는 코딩, 초등 고학년(4~6학년)을 위한 할로코드와 IBM 왓슨을 활용한 메이커활동으로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며 학습 신청은 6월 22일 10시

부터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김중남/기자

부평소방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예방 안전점검 당부

부평소방서는 15일 기온이 올라가면서 냉방기 사용의 증가에 따라 에어컨 사용 시 실외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홍보에 나섰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예방 방법으로는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 사용 ▲실외기 연결 부분 전선의 훼손 여부 등 확인 ▲실외기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사용 전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 점검 후 가동 ▲실외기 설치 시 벽과 10cm 이상 거리 두고 설치 등이 있다.

특히 실외기 팬이 작동되지 않거나 소음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받고 작동해야 한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장기간 에어컨 사용은 과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도한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라며 "실외기 내부에 먼지나 습기 제거 등 주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카페' 첫 시도...가정내 임시보호-입양 연계 강화

서울시는 유기동물 입양을 확산하기 위해 원거리 보호시설을 탈피한 '도심내 입양카페'를 시범운영하고, 유기동물 '가정내 임시보호'를 강화해 입양률을 높여 나간다.

먼저, 시는 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함께 지난 4월 동대문구의 폐업한 애견카페를 임대해,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장부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조성했다. 이번 동물보호시설은 '발라당 입양카페'로 시민 가까이 '도심내 유기동물 입양센터'로 시범운영된다.

'발라당 입양카페'는 유기동물을 만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일 셋째 주 토요일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규모 입양 파티를 개최한다. 바자회, 산책 행사 등 다양한 입양 활동을 진행하며 유기동물의 편견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발라당 입양카페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현재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가 시설 특성상 원거리 시설에서 위탁·운영 중인 점을 감안, 올 연말까지 도심내 입양센터 시범운영으로 시민-유기동물간 접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리본센터 같은 기존 도심내 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유기동물을 시민봉사자 가정 내에서 임시보호하며 입양

활동을 진행하는 '가정내 임시보호

제도' 강화한다. 시는 2019년부터 유



기동물 임시보호사업을 실시, '20년까지 총 258마리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되지 않고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는 성과를 거뒀다.

가정 내 임시보호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보호관리 방법으로 동물별 특징, 건강상태 등을 세심하게 관리해 유기동물의 폐사율을 줄이고 입양을 제고하기 위한 봉사활동이다.

올해는 시와 4개 동물보호단체(팅커벨프로젝트, 동물권행동카라, 동물구조119, 동대문구길고양이보호협회 길고양이사랑)가 민·관협력으로 실시한다. 또, 유기동물 입양홍보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많은 시민이 유기동물 입양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간 시민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의 치료, 입양 후 동물보험 가입, 입양 전·후 동물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전체 유기동물 중 가정으로 입양된 유기동물의 비율은 '18

년 32%에서 '20년 36.4%로 소폭 상승했으며, 안락사율은 '18년 24.3%에서 '20년 16.1%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앞으로 입양 활성화를 위해 시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동물보호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입양센터 3곳(강동리본센터, 서초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을 운영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유기동물의 수는 '20년 기준 6,300여마리로 '18년 대비 1,800여 마리가 줄었으나, 아직 16%의 동물이 안락사 되는 실정이다. 더 많은 시민이 유기동물 입양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지원시설과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의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울특별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코로나 악용 고금리 피해 집중구제

A씨는 불법대부업자에게 선이자 30%, 일주일 후 상환방식으로 회당 20~50만원씩 총7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던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더 줄어들면서 상황이 지어졌고 불법 대부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A씨는 2달여에 걸쳐 658만원을 상환했지만 더 이상은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조사결과 그간 A씨가 대부업자에게 낸 이자는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400%가 넘는 금액이었다. 이후 A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의 신속한 중재로 불법대부업자로부터 과잉 상환액 중 약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 6월 21일~7월 23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중개)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에 대해서 관련분야 전문조사관,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 과전직원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기간동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조

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376건 중 피해 유형으로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162건, 43.1%)'이 가장 많았다. 다음이 법률상담(123건, 32.7%), 불법채권추심(54건, 14.4%)였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 예를 들어 대부관련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및 문자내용,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및 실질적 피해 구제도 무료로 지원해준다.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민간단체 등과도 연계한다.

시는 신고건 중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내리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시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과전직원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불법대부업에 예방을 위한 불법대부업제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해 전화를 하면 발신자체가 안 되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 번호킬러'도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금융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상담은 물론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집중신고기간이후에도 상시단속과 점검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안양시, 15일 대형 해체작업현장 특별 안전점검

안양시가 15일 해체작업이 진행되는 안양5동 냉천지구와 평촌동지역 주택조합 지구 두 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였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참사 관련해 이뤄졌으며, 시 공무원과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냉천지구(382,999㎡) 지난 2월부터, 평촌동지역주택조합 지구(6,964,605㎡)는 4월부터 각각 해체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장점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당초 해체계획서에 맞게 철거가 이뤄지는 것인가와 해체공법과 작업순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가 관건이었다.

점검결과 해체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점검단은 건물해체 및 공사추진 과정에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안전요원 배치를 반드시 지킬 것을 주문했다.

시는 이와 아울러 해체작업이 벌어지는 타 사업장에 대해 구별 지도 점검을 벌여, 위법한 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대상사업장은 앞서 밝힌 두 곳을 포함해 모두 12개소다. 모두 해체작업이 벌어지는 곳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공사현장이 한군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준규/기자



군산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 끝난 게 아니다.



군산시는 오는 25일까지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에 따른 건본 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대대적인 현장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권 정식계약 체결 이전인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미기로

이뤄지는 불법거래 행위(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인 일명 뺏다방)가 집중 단속 대상이며 당첨권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단속기간에도 특별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현장에서 바로 경찰과 조사함과 동시에 위법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현장뿐만 아니라 인터넷(군산시닷컴, 부동산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격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며, "집값 안정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자에 대해 군산시나 군산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디오션시티 더샵 2차 분양 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중에 당첨자들을 상대로 분양권을 알선하는 외지인 뺏다방으로 의심되는 자를 경찰과 공조, 적발해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태/기자

양산시,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추진



양산시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예방·근절하고자 6.14일부터 한 달간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일제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와 타인명의 불법 자동차 및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가 되며,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타인명의 자동차(법에 의한 등록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불법 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한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된다.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박호진 소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중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 운행이 불법행위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교통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로 하면 된다.

남경영/기자

음성군, 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대책 추진

충북 음성군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대책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까지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총 79개의 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CCTV 10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CCTV 설치지역을 점차 확대해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만으로는 쓰레기 불법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과 홍보활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군은 올해 초 주민 342명을 마을환경지킴이로 선발했다. 이들은 담당마을을 대표하는 환경지킴이가 돼 마을 내 쓰레기 불법처리 계도활동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활동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취약한 마을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환경부 국고 보조 사업이다.

군은 예산 1억5천만원을 들여 6월 말까지 관내 10개 마을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50가구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를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에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30여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관내 음식점에 남은 음식 포

장용기 1만개를 지원해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전단지 4천장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현수막 100장을 제작해 마을회관, 공동주택 등에 배부하고, 불법투기 상습구역에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 130개, 표지판 10개를 제작·설치했다.

또, 6월 중 재활용품 품질개선 도우미 20명을 채용, 공동주택에 배치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생활쓰레기 불법처리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지난해 단속활동을 통해 총 35건의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적발해 불법 행위자들에게 1천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을 최대 20만원으로 증액, 포상금 지급 횟수도 기존 연 3회에서 연 5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쓰레기 야간시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지난 5월 말부터는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보다 폭넓은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무단투기 단속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생활폐기물 투기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사업장폐기물 투기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만식/기자



광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단속반 편성 운영,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광양시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종량제봉투 미사용(일반봉투, 마대포대 사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된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폐기물 수거·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버려진 생활폐기물의 수거 거부로 인해 악취, 벌레,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장마철과 여름철이 시작되는 6~7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3개 반 2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무단투기가 심한 시가지 음식점 주변, 상가, 시장 주변, 종량제봉투 사용이 저조한 면 지역

중심으로 강력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도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읍면동장을 통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희수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수거가 예전보다 조금씩 지연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수거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배출단계부터 올바른 배출이 필요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남경영/기자

광명시 박승원 시장, "마을공동체 살아있는 마을 만든다"



광명시는 15일 광명극장에서 '광명자치대학 제2기 입학식'을 열고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광명자치대학 학생 등이 참석했다. 광명자치대학은 이웃과 함께 협동하고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시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마을에 더 가까이 다가 지역 활동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치분권학과, 마을공동체학과, 사회적경제학과, 기후에너지학과, 반려동물학과(신설) 5개학과에 66명이 입학했다.

광명자치대학은 각 전공 분야의 기초와 심화, 권역별 마을활동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3학기제(교양필수·전공필수·융합심화과정)로 나누어 20주(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동안 운영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주민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힘을 모아야 도시가 성장하고 주민이 성장한다"며 "동네의 복지, 환경문제 등을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공동체가 살아있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그 중심에 설 마을 리더를 양성하고자 자치대학을 만들었다.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갈 중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분권학과는 '자치분권 2.0 시대 우리의 참여로 변화되는 광명! 자치하는 광명리더로 성장하기', ▲마을공동체학과는 '나와 사회를 연결하는 공동체 활동가, 마을의 참여 정책을 연결하는 마을 활동가, 지역 문제 해결과정의 리더로 성장하기', ▲사회적경제학과는 '함께 잘 살기 위한 사회적경제를 알아보고, 광명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리더로 성장하기', ▲기후에너지학과는 '광명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이끄는 활동리더, 마을에서 에너지전환활동을 만들고 제안하는 활동리더로 성장하기', ▲반려동물학과(신설)는 '동물이 안전(행복)해야 사람도 안전(행복)하다는 가치에 따라 비인간 동물의 문제와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연결하여 해결하는 활동리더로 성장하기'이라는 학과 이념을 갖고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날 입학식은 480석 규모 공연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자치분권학과, 마을공동체학과, 사회적경제학과, 도시재생학과, 기후에너지학과 총 5개 학과를 운영해 9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전순희/기자

안산시 윤화섭 시장, GTX C 안산 유치 '올인' 시민 소통부터 국무총리 면담까지

윤화섭 안산시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안산 유치를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직접 건의하는 등 연일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안산 연장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GTX C노선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며 사업 타당성을 높였고, 74만 안산시민의 염원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서 가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GTX C노선 안산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 서남부권 균형발전과 철도 공공성 증진을 위해 GTX C노선이 반드시 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안산선을 활용하면 사업 경제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윤화섭 시장의 건의에 대해 안산 유치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GTX C노선의 안산 유치를 바라는 74만 안산시민의 염원도 함께 전한 윤 시장은 앞서 지난 10일에는 국회 소동관에서 지역 정치권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철철 행정안전부장관·김철민·고영인·김남국 등 안산지역 국회의원과 한목소리로 안산 연장을 촉구했다.

당시 이들은 "GTX C노선 안산 유치는 안산시민의 오랜 염원으로,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 안산시민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GTX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높아진 안산시민의 관심에 윤화섭 시장은 이달 3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현안 사항을 직접 보고한 데 이어, 다음날인 4일에는 유튜브로 정책대담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적극 다가갔다.

윤 시장은 이를 통해 GTX C노선 안산 유치 실현을 위해 시 공직자와 함께 추진해온 결과를 알렸다.

시가 지난해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용역을 통해 도출한 '수원-금정 구간 일부 차량 안산 운행' 방안은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안산지역을 회차 및 정차 지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특히 GTX C노선 기본계획 이전부터 여러 컨소시엄과 가진 수십 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 정거장 설치에 따른 비용 및 선로 사용료 전액을 안산시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문서로도 확인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GTX C노선에 입찰한 컨소시엄 3개사 가운데 1개사가 안산 내 추가 정거장 설치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컨소시엄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민이 안산에서 GTX C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4조3천857억 원이 투입되는 GTX C노선은 수원(수원역)~양주(덕정역) 사이 74.8km를 이으며 이달 18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6월의 행복동행 호계3동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저소득층 방문 위로, 가구단지 애로사항 청취, 부녀회 바자회 방문 등

최대호 안양시장이 15일 동안구 호계3동을 찾아 '행복동행'에 나섰다.

행(정)복(지)동(洞)행(行)은 동장이 추천한 지역을 방문해 직접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기회로 마련된다. 안양시는 민선 7기 3주년에 즈음해 지난 5월 안양1동 주민자치회에 이어 두 번째 운영했다.

이날 호계3동에서는 안양가구단지협의회(회장 장선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동윤) 주관, 저소득 가정의 가구와 이불 후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현장을 찾은 최 시장은 후원가정을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물품을 후원해준 단체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양가구단지협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동 관내 저소득 8가구에 침대

등 후원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와 명절음식 지원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최 시장은 이어 호계3동 새마을부녀회가 개최한 이웃돕기 바자회장이 열린 아파트단지로 이동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녀회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소에도 밀반찬 나눔 행사, 김장나누기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어서 안양가구단지를 방문한 최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구단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나눔은 나눔



수북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커지는, 결국 더하기와 같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각박해진 세상이지만 넉넉한 정과 따뜻한 인심을 베풀고 계산 여러분들이 진정한

시민시장이다"라고 말하며 연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안양시는 올 하반기에도 시장과 주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는 행복동행을 계획하고 있다.

원종균/기자

여주시, 양돈농가 8대 의무방역시설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여주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 위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양돈농가 8대 의무방역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및 강원도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의 지속적인 ASF 바이러스 검출과 더불어 지난 5월 4일 강원도 영월군 양돈농장에서의 ASF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돈농가 8대 의무방역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은 현재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양돈농장들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인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이상 8종)을 각 농장 구조 및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의 양돈농장이 상기 시설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여주시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야생

멧돼지의 지속적인 남하 및 ASF 확산에 따라 추후 여주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역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에서는 경기 남부권역에 올해 9월말까지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양돈농가들이 컨설팅 지원을 받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미리 대비해 효율적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구축을 통해 관내 ASF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돈농가 8대 의무방역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가당 100만원의 사업비 내에서 컨설팅비 50%를 여주시에서 지원해주는 신규 사업이다. 여주시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96개 양돈농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6월 18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수/기자

파주시, 감악산·마장호수 출렁다리 안전관리 실태점검



파주시가 감악산과 마장호수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정환 파주시장이 직접 참여해 출렁다리 시설물의 안전 여부 등 경기도에서 실시한 실태점검의 안전조치가 잘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앞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안전관리실)은 경기도 내 출렁다리 총 13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여부 등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파주시의 출렁다리 감악산과 마장호수에 대해서도 지난 4월 28일 실태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집중 점검항목인 출렁다리 시설물 구조 및 유지관리 중 시

설물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난간기둥 고정용 볼트 체결 불량, 피뢰침 설치 높이 조정, 점검용 비상사다리 안전장치 보강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즉각 조치를 완료했다.

최정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민과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는 출렁다리처럼 다양한 산림휴양·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포천시, 행운의 이모티콘 제작 아이디어 공모

포천시는 포천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 1주년을 맞아 오는 7월 행운의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이모티콘은 행운의 도시 포천을 상징하는 '행운이'와 한탄강 캐릭터 '천이(화강암), 탄이(현무암), 진이(응회암)'가 주인공이다. 시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이모티콘 제작에 활용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간은 6월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네이버 폼에 이모티콘에 사용될 문구를 입력하면 된다. 당첨자는 7월 10일 포천시청 SNS에 발표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현무암 팔찌 만들기 키트를 지급한다.

포천시는 지난해 9월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 디자인을 토대

로, 손을 잡고 있는 네 사람(평화, 용서, 소통)과 사랑의 형상을 조합해 도시브랜드를 개성했다. 또한 12월에는 포천오성고한음체와 포천막걸리체를 활용해 도시브랜드 이모티콘을 배포했다. 특히 이모티콘의 주인공인 '행운이'는 포천시 브랜드에 유쾌한 얼굴표정을 넣어 배포 20분 만에 마감 만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포천 국립수목원에 이어 2020년 7월 유네스코에서 인증된 포천 한탄강세계지질공원은 비둘기낭폭포, 화석연, 한탄강 하늘다리 등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3회 연속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동희/기자

귀여웁썩~독특 튼튼 온글을 같이 만들어요!

행운이 이모티콘 2탄
한탄강편 "포천으로~ GOGO"

추첨을 통해 200명께 현무암 팔찌 만들기 키트(2세트)를 드립니다.

참여기간 2021. 6. 16.(수) ~ 6. 23.(수)
참여방법 카카오톡 채널 추가 및 이모티콘 문구 작성(네이버 오픈스톡)
당첨발표 2021. 7. 10.(토) / 시청 SNS 대재
※행운이 이모티콘 2탄을 받으려면 포천시청 카카오톡 채널 추가 필수※

하남시 스마트도시계획,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의정부시, 카카오톡 복지정보 채널 7월부터 운영

올해 기존 스마트 서비스 고도화 작업 등 시작, 2025년까지 완료 계획

하남시는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하남시 스마트도시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빛나는 스마트도시 하남’이라는 비전과 5대 목표 아래,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게 될 3대 추진전략 21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로드맵이 담겨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근거해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안)을 수립,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 후 보완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5일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작년 7월 시민 10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작년 11월에는 온라인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계획상 3대 추진 전략은 ▲



IT·R&D가 특화된 4차 산업혁명 혁신지구 등 미래형 신도시 조성 ▲리빙랩 기반 도시재생 연계, 생활 밀착형 서비스 도입을 통한 웰니스 생활환경 조성 ▲D·N·A(Data·Network·AI) 기반 스마트도시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이를 토대로 ▲주거환경 개선 ▲효율적 시정 ▲삶의 질 제고 ▲레

저·문화 등 4개의 테마로 분류해 21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출했다. 도출된 주요 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자율주행 버스·하남형 스마트주차 연계 ▲보행자 안심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하남 파란하늘 관리(IoT 기반) ▲쓰레기 관리 ▲하남형 디지털(시민) 시장실 ▲

독거노인 함께 ▲AI추적 안심귀갓길 ▲하남 역사·문화의 거리 ▲스마트 Park 서비스 등이다.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는 기존 스마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해, 2025년 스마트 서비스 확산 및 데이터 연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예산 사업비는 국도비 94억원, 민간투자 13억원을 포함한 총 358억원이다.

시는 2025년까지 중앙정부 공모 및 민간투자 협력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관계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계획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는 스마트도시 하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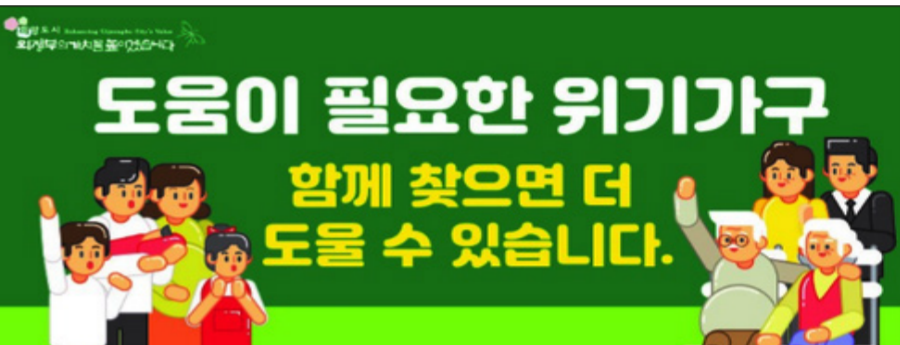
의정부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희망톡톡’을 개설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희망톡톡’이란, 톡(talk 대화하다)으로 의정부시와 지역주민이 의정부시의 희망복지를 위해 쌍방향 소통한다는 의미이다.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상단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의정부희망톡톡’을 검색 후 채널추가 버튼을 누르면 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1:1 복지상담, 복지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카카오 채팅을 통해 비대면으로 제공하며 해당 채널의 운영시간은 신고·문의는 24시간 가능하고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의정부희망톡톡 개설로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비대면 복지상담 창구가 마련되었으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며, “우리는 다양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평택시, 내 지역 일꾼 주민이 직접 뽑는다!

양평군,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모바일 서비스 '휘슬'(Whistle) 서비스 오픈



15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동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토론회가 열렸으며, 토론회 직후 남부문화예술회관과 신평동행정복지센터 2곳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주민투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투표를 하지 않고 문자투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장 후보자의 '동 운영계획' 발표에 이어 주민들로 구성된 패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통해 후보자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 직후 실시된 주민투표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구성된 135명의 신평동 주민들이 한상오 후보자에 대해 동장으로서 적격하지 투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는 주민투표단 135명 중 총 92명이 투표해 68.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투표인원 중 후보자에 대해 적격하다는 의견이 85명, 92.4%로 신평동 주민들은 한상오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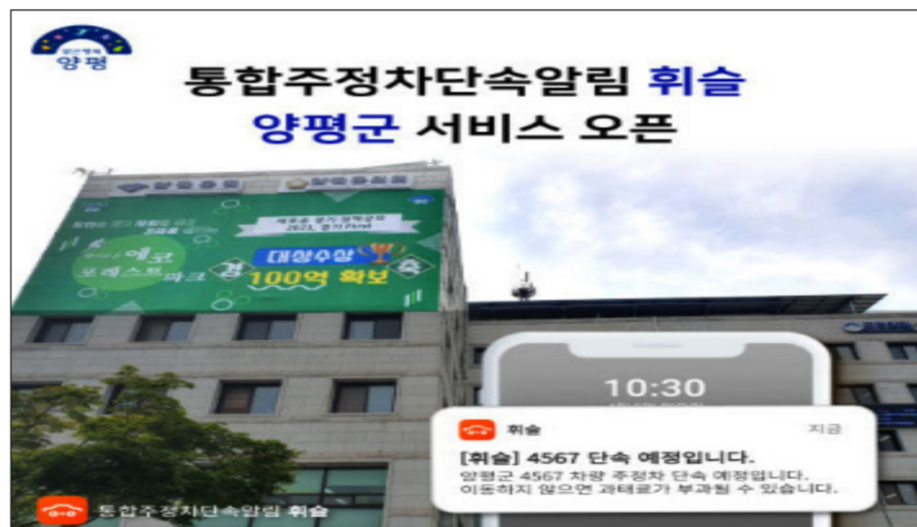
신평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평동장 추천위원회'에서는 투표 결과에 따라 한상오 후보자를 평택시인사위원회로 통보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오는 7월 정기인사 시 동장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읍면동장 직위를 내부 공무원에게 공모해 주민추천 방식으로 선발·임용하는 공모제로, 주민투표단이 읍면동장 직위에 공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투표해 적합한 후보자를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으로 주민자치와 행정의 역동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신평동장 선발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으며, 아울러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평택시에서 주민 손으로 직접 뽑은 동장이 탄생했다. 평택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의해 신평동 주민들이 동장 후보자에 대해 직접 검증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동장을 선발한 것이다. 이번 신평동장 선발을 위해 지난



양평군에서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모바일 서비스인 '휘슬(Whistle)'이 지난 14일부터 오픈해 서비스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2018년부터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부터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한 운전자를 위한 통합 주

정차 단속 사전알림 모바일 앱 '휘슬(Whistle)'을 도입했다.

이번 서비스가 개시에 따라 해당 앱을 통한 신규 가입 시 양평군을 비롯해 안양시, 군포시 등 경기도 지자체를 포함해 경상북도 김천시, 영천시, 영주시, 예천군, 안동시 등 타 지역 방문시에도 사전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지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장 될 예정이다.

이성욱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경북도 '우수 일자리사업 발굴대회' 3개 사업 선정

지역특성에 맞고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경북도는 지난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우수 일자리 사업 발굴대회'를 개최하고, 3개 사업을 선정·시상했다.

최우수상은 경북PRIDE기업CEO 협회에서 제안한 '경북형 뉴딜·지역 로컬형 청년 창업가 어워드 지원 사업'이 차지했고, 우수상은 (사)경북산학융합본부가 제안한 '경북 퇴직기술엔지니어 Silverlife 이모 JOB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장려상에는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이 제안한 '포스트 코로나 장기화 극복형 경북주력 제조산업의 신성장산업 도약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유도 지원사업'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발굴대회에서는 도내 시군과 수행기관에서 총 13건의 일자리 사업이 접수되어 전문가 4명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2차 PT발표를 거쳐 선정됐다.

일자리 발굴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고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합하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상북도에서 조기에 발굴하고 시책화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사업은 2022년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경북도 일자리 정책에 반영 해 추진 할 예정이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오늘 대회에서 발전적인 대

안과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부탁한다"며, "도에서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사업들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상주시, 저소득노인 무료 백내장 수술 업무협약

상주시 ⇄ 상주중앙로타리클럽 ⇄ 서울안과의원 · 제일안과의원

상주시와 상주중앙로타리클럽, 서울안과의원, 제일안과의원은 6월 15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소득노인 무료 백내장 수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백내장으로 시력에 장애가 있는 상주시 거주 저소득층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무료로 수술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무료 수술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맞춤형복지팀에서 대상자를 추천한다. 수술 대상은 400 안구(눈 숫자 기준)이며, 수술비는 상주중앙로타리클럽에서 지원한다.

수술을 담당하는 서울안과의원과 제일안과의원은 안과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교육도 병행해 수술 전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한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 백내장 무료 수술을 지원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대상자 발굴 및 선정에 도움을 주신 상주시와 수술



전후 불편함이 없도록 눈 건강 관리 교육을 약속한 서울안과의원과 제일안과의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중앙로타리클럽과 서울안과·제일안과의원의 무료 백내장 수술 업무협약 체결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눈 건강 개선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상생과 협력의 복지 상주를 이루어가

한반식기자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청도 농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청도군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청도농업을 선도해 나갈 청년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후계농업인들은 체계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안내사항 및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승률 청도군수, 청년후계농업인,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농업현장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 발굴 등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제시와 이승률 청도군수의 답변이 이어졌다.

청년후계농 전○○씨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종을 설문조사하여 추가 구입할 것을 제안드리며, 동일인이 중복임대하는 것을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군수는 "내년도 농기계 구입예산

을 최대한 반영하고, 수요자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년후계농 최○○씨는 "청년후계농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이군수는 "현재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추후 청년농업인을 위한 단독 공간 조성을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년후계농들이 농업현장에서 겪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했고, 이승률 청도군수는 답변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 청년농업인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승률 청도군수는 "미래 청도농업의 주역인 청년후계농업인 여러분께서 새로운 농업기술도입과 적극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농업소득을 증대시켜 모두가 부농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



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한편, 청도군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43명의 청년후계농을 선정해, 후계농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지원금을 영농경력에 따라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을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반식기자

대구시동구, 최초로 전 직원 실시간 온·오프 법제교육 실시

대구 동구청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직원들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고문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행정심판 실무교육', '행정기본법 설명', '행정소송 실무교육', '정보공개법', '실무자를 위한 자치법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 민법' 등 6개로 직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 14일에는 첫 순서로 대구 동구청 고문변호사 하경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행정심판 실무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하 변호사는 행정심판의 절차를 중심으로 기간, 대상, 처분서, 유의점 등 실무 사례를 중점으로 교육했다. 현장 및 온라인으로 약 300명이 교육에 참여해 호응이 높았다.

대구 동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많은 직원들의 교육 수감을 위해 대구시 8개 구·군 최초로 대면교육과 동시에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온·오프 양방향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교육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도입해, 대면

교육은 소규모로 하되, 다수 직원들이 강의를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동구청에서도 최초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동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준수하는 한편 교육 참여도 및 교육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법제처 김혜진 서기관의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설명회'(18일), 이찬우 변호사의 '행정소송 실무교육'(25일), 이우덕 변호사의 '정보공개법'(7월2일) 등이 이어진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공직자의 법적 역량 강화를 통해 구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이 돼야한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법 지식을 함양해 법적 능력이 향상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안동시 이웃사촌이 들려주는 '선성수상길 우리동네 이야기'



안동시이웃사촌복지센터는 도산면 서부리 '선성수상길'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민이 직접 해설가가 되어 수몰 전 마을의 모습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기마을 주민해설가'활동을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주말과 공휴일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의 묘미를 더해줘 마을 홍보의 기회가 될 이번 활동은 주민조직 활성화 과

정 중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시작했다.

마을 안에 선성현문화단지, 한옥체험, 갤러리 같은 볼거리가 있고, 안동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면서 사라진 자리에 놓인 선성수상길을 바탕으로,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마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희망이 원동력이 됐다.

이를 위해, 마을에 오래 살아 마을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민해설가에 지원한 또 다른 주민에게 사전교육을 진행했고,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준비와 보완의 단계를 거쳐 탄생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다.

정철환 안동시이웃사촌복지센터장은 "예기마을 주민해설가를 시작으로 마을이 활력을 되찾고, 이와 더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경산시,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지정

경산시는 16일 경산진량선화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경산시에서는 2017년 하양 코아루 1차 아파트를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계양 피카소, 백전 삼도뷰엔빌W, 중산 펜타힐즈 푸르지오, 남천 리버뷰우방아이유엘에 이어 이번 진량 호반베르디움을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

주 동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산시는 진량 호반베르디움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하여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 부착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해 홍보에 힘쓰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흡연자로부터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연아파트 조기 정착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호흡기 감염병 시대에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돼 아파트 전체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영덕사랑상품권(종이) 일시 판매 중단

7월 1일부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류카드 통합한도운영

영덕군은 영덕사랑상품권·카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데이터 이설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이형 영덕사랑상품권을 일시 판매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간 내 가맹점의 종이형 영덕사랑상품권 환전과 영덕사랑카드 사용 및 충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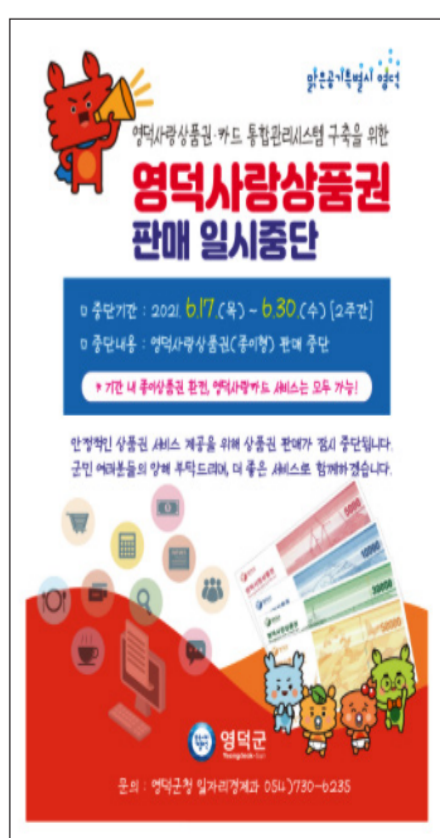
이번 구축되는 한국조폐공사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은 상품권 구매 시 휴대전화 인증 등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소비자와 가맹점의 비정상 사용 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상품권 부정유통을 예방할 수 있다.

영덕군은 상품권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7월 1일부터 종이형 상품권 판매를 재개하며, 별도 운영되던 영덕사랑상품권과 영덕사랑카드의 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용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안전하고 투명한 상품권 유통에 꼭 필요한 조치로 군민들의 이해와 협

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산청군, 산청읍-경호강이 한눈에 응석봉 자락 등산로 개설

내리~대장 간 1.28km 구간... 지리산 둘레길 탐방객 활용

산청읍과 경호강을 한눈에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등산로가 개설됐다. 16일 산청군은 산청읍 내리~급서면 대장마을을 잇는 1.28km 길이의 등산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산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6월 김수환 산청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지역을 찾는 지리산 둘레길 탐방객(수철~성심원 구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길 조성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응석봉 국립공원의 북쪽 자락을 걸을 수 있는 이 길은 다수의 펜션이 모여 있어 방문객이 많은 내리에서, 급서농공단지 인근의 대장마을까지 이어진다.

급서면과 산청읍 지역 주민은 물론 지리산 둘레길 탐방객도 숲속에 개설된 이 길을 통해 높은 곳에서 산청읍과 경호강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다.

이 길은 내리 방면으로는 경호강을 따라 산청읍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6.5km 길이의 '항노화 산들길'과 맞닿아 있다.

'항노화 산들길'은 산청군청 뒤편에서 경호강변을 거쳐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어지는 '느림의 길'과 꽃봉산을 둘러가는 트레킹 코스인 '청춘의 길', 산청소방서에서 수계정이 있는 산청공원으로 이어지는 '명상의 길', 경호1교에서 산청약초시장을 둘러보는 '산청한방특구길' 등 4개 코스로 이뤄져 있다.

대장마을 방면으로는 대한민국 항노화 웰니스 1번지 동의보감촌을 지척에 두고 있다. 현재 산청읍과 동의보감촌을 잇기 위해 조성 중인 걷기·자전거길 '동의보감 시오리길'과도 이어질 예정이다.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문화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춰 완성될 전망인 '동의보감 시오리길'은 산청을 찾는 방문객들이 산청읍과 급서면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동의보감촌까지 닿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앞서 말한 길들은 현재 산청군이 조성 중인 친환경 걷기·자전거길인 '경호강 100리길'과도 연계돼 시너지를 더할 전망이다.



산청읍 내리 한 주민은 "어린 시절 비가 많이 오면 불어난 강물 탓에 읍내로 향하는 길이 끊겨 지금의 등산로가 만들어진 오솔길로 오갔던 기억이 있다"며 "옛 추억은 물론 고향의 풍광을 즐기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길이 생겨 기쁘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내리~대장 간 등산

로가 지리산 둘레길 탐방객들이 우리 산청군에 더 머무르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명품 '웰니스 걷기길'로 거듭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부산시, 대한민국 1호 오륙도선 트램, 시민이 직접 고른다!

부산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남구청, 오륙도선 트램 차량 디자인 시민 선호도 조사 진행

부산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산 남구청과 함께 오늘(16일)부터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실증노선) 트램 차량 디자인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부산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증구간을 달릴 대한민국 1호 트램의 디자인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고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철도기술연구사업인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 연구개발사업은 트램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실증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지난 2019년 1월 부산 오륙도선이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으로 선정되었다.

오륙도선은 남구 대연동 용소교차로에서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에 이르는 총연장 5.2km에 달하는 노선으로 이중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이기대여귀 삼거리까지 약 1.9km 구간이 실증노선으로 구축된다.

이는 전 구간 무가선으로 건설·운

행되며,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륙도선을 달릴 트램은 가선 없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한번 충전에 세계 최장 거리인 4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트램 차량 디자인은 각각 ▲국내 최초 트램으로서의 혁신성 ▲부산 도시경관과의 조화 ▲친환경 미래도시 부산 등을 컨셉트로 제작되었다.

선호도 조사는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현장 투표는 부산 국제철도기술산업전시회 전시공간과 남구청 민원실 등에서 진행된다. 부산시는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 최종안을 결정해 이를 반영한 차량 설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사람·안전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통영시, 올 여름휴가는 통영에서 안전한 섬관광하세요

통영육지섬모노레일' 한국관광공사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 선정



통영시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올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통영육지섬모노레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무더운 여름을 안

전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올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을 선정하면서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혼잡도가 낮은 관광지 가운데 바다·섬·계곡·숲 등 여름 휴가지로 매력적인 곳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경남에서는 통영육지섬모노레일을 비롯해 하동 편백자연휴양림, 함양 화림동계곡 일원 선비문화탐방로, 밀양 가지산 최점골계곡길 등 총 4곳이 25선에 포함되었다.

'통영육지섬모노레일'은 하부역사에서 2km의 순환식 케드로 무인 운행하면서 상부 역사인 대기봉 정상까지 가는 약 16분 동안 아름답고 활기찬 육지 섬마을의 전경과 연화도·우도·국도 등 탐성을 자아내는 천혜의 한려해상 경관을 한눈에 만끽할 수 있는 바다 위에 펼쳐진 파라다이스다. 연계관광지로 2개의 출렁다리가 있으며 먹거리 또한 풍부해서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570개의 보석같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통영시는 행안부가 선정한 2021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한산도, 사량도, 옥지도, 장사도, 연화도 등 5섬이 포함되었으며, 섬 체류 여행자의 경비를 지원하는 '내 멋대로 Stay in 통영' 이벤트를 24일(8월 6일) ~ 8월 8일까지 3일간 제2회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기념식을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 만큼 올 여름 안전한 휴가지를 찾았다면 섬과 바다가 있는 통영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며 통영은 안심관광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 휴가는 안심관광지 통영의 섬과 바다에서 안전하고 시원한 여행하시길 바라며, 이를 위해 통영시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영훈/기자



고성군,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417억 확보

농촌 정주여건개선·경제활력제고·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추진

고성군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5년간 국비 282억 원을 포함한 4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지역이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맞는 농촌공간전략계획(20년)과 단기실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5년)으로 중앙과 지방이 농촌지역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향후 5년간 417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자해 △농촌정주여건개선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포용커뮤니티 공동체구성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농촌을 계획적으로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성군의 20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은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는 말을 인용,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멀리서 사람이 온다'라는 비전으로 장기적으

로 크고 강한 농촌고성을 위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형 교통모델구축사업 등 28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두현 군수는 "고성군은 입지적으로 4개 시와 인접해 있다"며 "농촌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농촌공간이용과 농촌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다시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농촌협약 공모선정을 위해 건설과 지역개발팀을 농촌정책과로 조직을 개편했고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를 구성해 농림부 정책에 잘 맞게 대응해왔다.

또한 4명의 전문가문단 구성, 적극적인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11개 부서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운영, 정책과제 설정과 이행사항 결정을 위한 농촌협약위원회 운영으로 농촌협약 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강영훈/기자



울산 남구,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개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는 16일 오후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남구가 후원하고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교육은 주민으로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우리 마을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관중심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찾

고 해결방안을 수립·실천하는 마을복지계획의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사회복지 정책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강화되면서 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은 사회복지의 흐름이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추진되고 있다.

이에 남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마을복지계획추진단의 발대식을 6월 말에 갖고, 7월부터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자원 발굴 연계·지원 등의 역할을 중점으로 해주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 가장 많이 아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으실 거라 생각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마을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창원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운영

100개소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시범 설치, 32% 사고 감소 효과

창원시는 보행자 중심의 더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을 최대 5m까지 떨어뜨리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별 각 1개 구간을 선정해 횡단보도 정지선 100개소를 기존 2~3m에서 최대 5m까지 떨어뜨리는 사업을 시행했다.

운영한 지 6개월 가량 지난 후 사고와 부상자 수 등 효과 분석한 결과 시행 이전보다 32%가량 사고 건수 감소 등 보행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횡단보도나 재정비를 추진할 때 횡단보도는 정지선을 최대 5m까지 늘려 설치하게 되며, 한 해 약 200개소 정도 개선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지난해 간부회의에서 허성무 시장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타 시에서 시행해 효과를 본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사업 추진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차선 재도색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확대 운

영하게 됐다"며 "횡단보도 정지선과 5030 안전속도 준수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설치 외에도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 확대,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시범 사업 운영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전라남도, '김대중 평화회의' 세계적 회의 육성 시동

15일 조직위 열어 '세계평화를 위하여' 주제 행사 기본계획 확정



전라남도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김대중 평화회의' 첫 회의를 개최, 앞으로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논의하는 세계적 회의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1 김대중 평화회의 조직위원회'를 15일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열어 김대중 평화회의에 세계적 유명인사를 초대, 글로벌 행사로 치르기 위한 행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21 김대중 평화회의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을 맞아 전남도가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에서 주관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조직위원회는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 외교, 학계, 언론계 인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세부 주제, 주요 참여 인사, 세션, 부대행사 등을 확정해 전남을 전 지구적 민주주의, 실천적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전남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축제가 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27~28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일원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국제기구 대표 등 국내외 평화지도자와 학계, 도민, 학생 등 2천여 명의 온·오프라인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넘어 세계평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메인행사에 들어가는 4개 핵심세션과 부대행사 등으로 치러진다. 4개 핵심세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 평화와 화해의 지도자, 용서와 화해, 팬데믹과 생명, 환경이다.

전남도는 평화회의 개최를 통해 전남에서 피어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전남을 배경으로 시작된 평화, 민주주의, 인권이야기를 세계와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김대중 평화회의를 통해 평화와 인권으로 미래를 잇는 전남에 특화된 의제를 선점, 평화를 위한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는 세계적 회의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목포시,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총사업비 증액으로 사업 추진 탄력

377억원 증액...6월중 실시설계·시공 통합 발주, 2024년 12월 준공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이 총사업비 증액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증액 심의에서 서부정비창 사업은 총사업비가 2,371억으로 증액됐다.

해경은 서부정비창 신설을 위해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2019년 8월 완료한 후 2020년 9월 기본설계를 마쳤고, 올해 5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가 상승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기존 사업비 1,994억원에서 412억원을 증액한 2,406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고, 기재부 심의 기간 단축과 예산 원안 증액을 위해 목포시와 김원이 국회 의원, 해양경찰청, 전라남도 등의 노력으로 총사업비는 당초보다 377억원이 증액된 2,371억원으로 결정됐다.

목포 신항만 허사도 일원(10만9천㎡)에 들어설 서부정비창은 항만시설, 상가(上架)시설, 건축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항만시설은 잔교식 안벽 1선석(180m)과 의장안벽 205m가 조성되며, 항정을 들어올려 수리하는 육상 시설인 상가시설은 5천톤급 플로팅

도크와 700톤급 칩리프트가 각각 1기씩 설치된다. 건축시설은 본관과 수리공장 등으로 합성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등을 생산·사용하는 수리공장에는 기관공장, 전기공장, 의장공장 등이 들어선다.

총사업비 증액 확정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된 서부정비창은 기재부 세목 정정후 6월 실시설계와 시공을 통합(턴키) 발주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부정비창 시설은 현대삼호중공업(대형조선사)과 대한조선(중형조선사) 등 2곳에서 물량을 받아 블록 등을 생산하는 기자재 업체가(75%, 210여개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 서남권 조선업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서부정비창은 전남 서남권 조선업체에 연간 500여억원에 달하는 외주용역 및 조선기자재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 인구와 예산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 경비의 효율성도 향상된다. 현재 함정을 수리하는 해경 소속 정비창은 부산정비창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전국에 있는 5개 해경(중부청·서해청·남해청·동해청·제주청) 소속 함정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부산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도 중소함정함에 한해 대형 함정은 해군 소속의 진해정비창에서 수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부정비창이 들어서면 중부청·서부청·제주청 함정은 부산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대형함정도 해경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서부정비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목표연도인 2024년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전라남도, 해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행정지원, 기입유치, 지역기업 우선 발주 등 상호협력의 결속력을 높일 방침이다.

김동일기자

담양군문화재단,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모두 다 가치' 참여자 모집

21일부터 예술분야 강사 및 동호회 공개 모집 예정

(재)담양군문화재단은 전남문화재단이 공모한 '2021 전남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돼 6월 중순부터 담양군 문화리빙랩 '모두 다 가치' 예술동호회 및 예술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두 다 가치'는 건강한 예술 공동체 문화 조성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도내 문화예술인들과의 협력과 더불어 예술 분야 전문가를 연결해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 및 심사 후 강사를 포함한 5인 이내 동호회 20팀을 선정하고, 선정된 팀들이 지정미션 및 자율기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원한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담양 내 예술동호회의 활동을 독려해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활발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주민과 문화예술인 스스로 지역이 가야할 길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참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접수는 모집 공고를 통해 6월 21일부터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

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홍곤기자

광양시, 인공지능/블록체인 교육 3기 수강생 모집

2021년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인공지능(AI)/블록체인 교육생 모집 (3기)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 능력과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한 전남의 주력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블록체인 핵심 인재육성

교육대상: 전남 지역 1, 구내 명예 기능(가정, 소기업, 제작, 소기업, 창업 및 재취업(부정확))

교육내용: 최신 온라인 교육 (교육 인정)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실시 (교육인재개발원/교육인재개발원/교육인재개발원)

교육장소: (재)전남교육진흥원 (061-339-6932)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761-9963) / info-edu@kita.or.kr

교육기간: (17명 교육 예정)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비
초급과정	07:30~09:00	중·고등학생	0000~23000(4명)
중급과정	09:00~10:30	일반인	0000~10000(4명)
고급과정	09:00~10:30	일반인	0000~10000(4명)
고급과정	09:00~10:30	일반인	0000~10000(4명)
고급과정	09:00~10:30	일반인	0000~10000(4명)
고급과정	09:00~10:30	일반인	0000~10000(4명)

* 상·교육부장관 직속 교육진흥원에 따라 교육비 지원

의 인공지능 구현'에 따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주관하고, 광양시와 전라남도가 협력해 추진하는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9월~2023년 12월 SW 인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전라남도 내 기업 재직자,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는 물론 인공지능/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3기 교육과정은 오는 7월 8일~9월 17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인공지능 분야는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원리학습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AI 개발자 기본과정, 인공지능 분야의 기획과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AI 프로젝트 과정, 업무활용도가 높은 글로벌 AI 자격증 취득을 위한 ▲AI 자격증 취득과정 등이 있다.

블록체인 분야는 블록체인 기획과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과정으로 편성됐다.

교육신청은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2층의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전문 교육실에서 집합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주욱 정보통신과장은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질강·항만 신소재 등 지역 전략사업 육성에 필요한 4차산업혁명 핵심 SW 인재를 양성해, 광양시가 디지털 선진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AI 국가전략(사립 중심

조기석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노틀담 형제의 집에 'IT움' 생겼다

광주 남구 관내 아동 복지시설인 '노틀담 형제의 집'에 디지털 교육의 산실이 될 'IT움'이 문을 열었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봉선동 노틀담 형제의 집에서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김장현 한전KDN 사장, 김희순 노틀담 형제의 집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KDN IT움' 현판식이 열렸다.

새롭게 문을 연 한전KDN IT움은 교육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와 한전KDN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한전KDN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디지털 교육을 위해 사업비 2,000여만원을 투입, 컴퓨터 10대를 비롯해 빔 프로젝터, 책상, 프린트기 등 집기를 구입해 IT 정보화 룸을 조성했다.

또 IT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교육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정보화 소외계층의 교육환경 개선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상생 발전 측면에서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우리 한전KDN에서는 IT 정보화룸 조성을 통해 미래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더욱 큰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전동평 영암군수, 자랑스러운 전남대인 선정!

전동평 영암군수가 올해 전남대학교 개교 69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에 선정됐다.

전남대학교는 '자랑스러운 전남대인' 수상자로 전동평 군수 등 12명을 선정하였으며 시상식은 15일 오후,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전남대학교에서 매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은 대학 졸업 후 모교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높이고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동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전 군수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암군수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등 전남대인의 자부심을 크게 높이고 대학 발전에 큰 공헌을 인정받아 이번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에 선정됐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올해 '자랑스러



운 전남대인'이라는 어느 상보다 영광스럽고 값진 상을 받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우리 전남대학교의 개교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글로벌대학으로

서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더욱 융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동학농민혁명성지 고창, 역사문화 관광 품격 높였다



고창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창군과 선운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석씨원류 목판복원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망실 및 파손된 목판 52매를 복원했다. 이에 더해 '조선시대 타임캡슐'로 일컫어지는 이재 황윤석 선생이 평생에 걸쳐 기록한 백과전서 '이재난고(齋亂藁)'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사를 맞았다.

고창군은 지난해 연말 국가지정 '법정 문화도시(예비)'에 선정돼 '치유와 힐링' 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고창 문화관광재단 설립→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조직→관련 제도(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 활동 등 올 연말 본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반기에는 '치유문화도시 기초자원강화사업', '시민문화공동체 형성 등 '문화도시' 시 창의적 가치창출사업'과 도시재생과 문화관광재단 등 관련 기관과의 지역문화생태계 연계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창군 대표축제인 '고창모양성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연계 첨단 CT(Culture Technology) 실증사업(R&D)'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8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꿈을 꾸고 실현하며 역량을 키우는 '인재양성 교육도시 고창'의 꿈도 새록새록 영글고 있다. 민선 7기 고창군은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키우기'를 균형핵심 방침으로 정했고, 군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장학재단 활성화의 성과로 이어졌다.

민선 7기 출범일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모두 4억6360만원의 장학금이 모아졌고,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고인 2억8790만원의 기금이 기탁됐다. 이를 통해 장학재단은 지난해 109명 4개단체에 1억20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3개년동안 271명에게 모두 2억62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민의 삶의 흔적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의 수많은 문화유산이 발굴되고, 가치를 찾고, 활용돼 군민들의 삶 속에서 기억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상과 번영의 에너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정읍시, 중국 충칭에서 정읍의 관광 매력 홍보 '눈길'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서부 국제관광박람회'서 관광홍보관 운영

정읍시가 중국 서부 중심도시인 충칭에서 정읍의 관광매력을 소개해 중국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7회 중국 서부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관광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최초의 해외 현지 홍보마케팅 행사다.

선제적인 관광홍보마케팅을 통해 중국 내에서 부상하는 지역 중 하나인 중국 서부지역의 관광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중국 내 30개 성, 1,000개 기업이 참가했다.

중국 이외 국가로는 전라북도(한국)와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헝가리, 에티오피아 등이 참가했다.

시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내장산국립공원과 옥정호 구절초 지방 정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 전국 최대 규모의 라벤더 농원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전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박람회 기간 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퀴즈이벤트 등을 운영해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시는 향후 전북도와 협력해 박람회에 참여했던 관광 및 언론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 대상으로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침체한 정읍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익산시-전북농협, '농촌 일손 돕기' 나서



익산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15일 공무원과 전북농협 임직원들이 협력해 농번기를 맞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을 위한 '일손 돕기' 합동 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박종수 미래농정국장, 전북농협 장기요 영업본부장, 박병철 노조위원장 등 시청 공무원 30명·농협 직원 40명이 참여했으며 여산면 두여리 양과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를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현장에서 양과 수확, 비닐 제거 작업 등을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손 소독·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여산면 농가들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양과 수확철이지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영농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수확시기를 놓칠 우려가 컸다.

이에 시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파악하고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등에 일손 돕기 동참을 요청하는 등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농촌 일손 부족을 통해 농가에 연인원 2만3천여명의 인력을 공급하는 등 농업인들의 동반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농촌 일손 부족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일손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민들의 고충과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산농협은 갈수록 심해지는 일손 부족 현상을 우려하며 조합원들의 인건비 절감, 양과 수확의 작업능률 고취 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톨백 수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선수/기자

남원 농산물 통합마케팅 평가에서 잇달아 수상

남원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각종 평가에서 잇달아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14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통합마케팅조직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원(도비)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20년말 기준 통합마케팅조직 사업 운영실적 평가'로 평가결과에 따라 도비 유효액을 평가등급

별로 차등지원(부진조직 제외)에 따라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타 지자체보다 많은 인센티브자금을 확보, 최종 3억원으로 농가 조직화·전문화에 힘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선별 참여농가의 상품화(공동포장재)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또한, 금년 1월 "춘향애인" 공동브랜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4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특히,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산지유통혁신조직으로 선정되어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인센티브와 금리차등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신규자금 64억원과 기존 사용 자금 133억원을 포함한 197억원(무이자 138.2억원, 저리 1% 58.8억원)을 확보하여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참여한 농가에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수확기전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였다.

남원시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국내외 농산물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지원

책을 통해 통합마케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적극 홍보 및 활용을 통해 전체 환경에서 생산된 남원농산물 인지도도를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괴산군, 지적재조사 선도사업 순항

충북 괴산군이 연풍면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선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국비 6억 65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연풍면 삼풍리와 행촌리 일원 3567필지 285만4037㎡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 선도사업을 통해 기존의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탈피해 대규모(행정구역 리·동 단위)로 지구 단위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본격적인 측량을 시작한 이래 올해 6월 3567필지(토지소유자 882명)의 면적증감 및 경계를 1차적으로 확정했다.

군은 이날 중으로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해 20일간 의견 제출을 받고 8월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간의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거쳐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임에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새로 확정된 경계로 정리된다.

또한 종이지적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변화해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건축물 저축 해소,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지 국비 5억 9000만원을 지원받아 9개 지구 365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0년도 사업지구인 사리방축지구 1126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해 겪던 불편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대전시, 브랜드슬로건 협업기업 공개 모집

기업과 공동브랜드를 통한 브랜드가치 창출, 브랜드 확산 기대

대전시는 브랜드 슬로건 'Daejeon is U'(대전이지유)와 공동브랜드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대전의 도시 브랜드 확산을 위한 Daejeon is U 협업기업(단체)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Daejeon is U와 브랜드 협업이 가능한 상품이나 콘텐츠를 가진 대전 소재 기업(단체)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좋은 제품에 대전브랜드가 더해지는 협업을 통해 기업의 상품가치가 상승하고 더불어 대전브랜드 가치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해당사업의 전문성, 지속력, 실행력 등을 심사평가해 최종협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시민이 만든 브랜드 슬로건을 보다 많은 시민 이용을 위해 사치·향락업소나 해당상품, 브랜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상품(콘텐츠)이 아니라면 폭넓게 수용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단체)에는 협업기간 동안 대전시 브랜드 슬로건 Daejeon is U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청 T마트 입점지원 등 협업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윤균 대전시 홍보담당관은 "Daejeon is U와 기업 간의 민·관협업을 통한 상품 및 콘텐츠 개발로 기업과 대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탄생한 Daejeon is U가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히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향토기업인 ㈜맥키스컴퍼니와 협업을 해 연간 260만병의 '이제우리'라벨에 Daejeon is U를 병기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한밭가득'농산물 포장재에도 슬로건을 표기해 브랜드 슬로건의 지역 업체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고정화기자

양양군, 설악~물치해변 몽돌소리길 새롭게 단장한다

설악해변~물치해변 3km 구간, 서핑해변에 예술 감성을 담은 힐링로드 조성



양양군이 양양비치마켓이 열리는 설악해변부터 물치해변까지 3km 구간의 몽돌소리길 연장 조성에 들어

갔다. 군은 지난해 3월 강원도 명품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원현 설

악해변~정암해변 1.2km 구간에 대해 리모델링을 한 바 있다. 2015년에 관동팔경녹색경관길로 개설된 바 있는 이 구간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감상길과 작품들로 채우고, 예술적 감성을 더해 새롭게 재창조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으로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 몽돌소리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과 물치해변까지 이르는 총 3km 구간을 양양비치마켓 예술작가와 협업하여 서핑해변에 예술감성이 흐르는 힐링로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바다의 풍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힐링 스페이스 조성, 수작업으로 만든 나무그네 설치, 기존 낙후한 조명물들에 전문가가 패턴팅과 일부 벤치에 팜아트 그래픽을 가미하는 등 아름다운 몽돌의 속삭임을 들으며 걸을 수 있는 특색 있

는 산책로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현재 몽돌소리 길은 모든 구간이 데크로 조성되어 있어 걷기와 자전거 트레킹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곳곳에 흔들의자 등 이색적인 휴게공간과 감성을 담은 방향안내판을 설치해 포토존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군은 7월말까지 몽돌소리길 조성을 마무리하여, 기존 설악해변부터 정암해변까지의 구간과 이어지는 총 3.0km 구간을 동해안에서는 보기 드문 몽돌해변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보다 멋진 풍광과 즐거움을 선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몽돌소리길 정암-물치해변 구간을 연장 조성하여 서핑해변을 따라 걷는 몽돌소리길을 힐링 관광지로 육성하고, 이와 함께 우리군의 전체 해안이 서핑해변임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조성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청양군, 바른 식생활 지도사 19명 배출



청양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5일 바른 식생활 지도사 19명을 배출했다. 이날 자격증을 획득한 식생활 지도사들은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차례 진행된 교육과정에 참여해 식생활 교육, 파이

토케미컬에 대한 이해 등을 배웠다. 한 수료생은 "코로나19 때문에 집밥이 더욱 중요해진 때 바른 식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우리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건강 비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원호기자

강원도 조직문화 혁신, 본격 추진

강원도는 "직원이 행복한 일터, 일 잘하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 조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조사 등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4월 수립 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직문화 혁신의 주요 실천내용은 첫째, 업무혁신과 조직 내 소통을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추진단' 운영이다

세째, 세대별 공감과 조직 내 소통을 위한 '강원도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단'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과 업무환경 등 분야별 혁신 과제를 제안하여 실행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련업무 팀장, 직원대표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한 각종 의견, 아이디어 제안·토의하여 정책에 반영

또한, 부서(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도정 현안 해결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컨설팅 등)를 마련하여 도정 전반에 협업의 일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슬기로운 조직생활과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월별 캠페인' 추진

이다.

3월부터 매월 시기에 걸맞는 혁신과제를 선정, 월별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조직 내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반기에는 직장 내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긍정과 활력넘치는 조직 구현을 위해 구성원의 변화·혁신 마인드 함양을 돕는 교육,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 전국 최초 '건강체조 동영상' 자체제작·배포 및 전 직원 대상 주 2회 건강체조 실천이다.

코로나 19로 지친 직원들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을 위해 3~4월 월별 캠페인으로 추진한 건강체조(어쩌다 스트레칭)가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전국 최초로 '건강체조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본 동영상은 강원도와 강원도체육회가 협업하여 도내 관광지를 배경으로 도청 새내기 직원들과 강원스포츠클럽 선수들이 함께 출연하여 제작하였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강원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강원도청 유튜브에도 올렸으며, 향후 전국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배포할 계획이

다. 아울러, 도청 직원들은 지난 6월 11일부터 주 2회(수, 금요일) TV를 시청하며 건강체조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업무 방식의 개선을 위해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보고·결재, 영상회의, 업무 지식의 축적과 상호 공유 등으로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 휴가 제도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근무문화 정착으로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 조직문화의 방향을 변화에 맞추고, 조직 구성원과 수평적 소통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정선문화원, 남평리 토방집 짓기 놀이 학술대회 개최

정선문화원에서는 정선 "남평리 토방집짓기놀이"에 대한 전통 무형문화 계승발전과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 16일 오후 1시 정선농협 한우타운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남평리 토방집 짓기 놀이 학술대회는 강릉 원주대 장정용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된다.

강원대학교 최창순 교수의 정선지역의 전통 건축의례 및 민속신앙, 고은채 콘텐츠 글찬마루 대표의 전통 민속 건축기술을 소재로 한 민속공연 시나리오 제작 과정, 이학주 한국문화소리텔링연구소원장의 정선 토방집짓기놀이가 가지는 마당놀이로서의 성격과 문제점, 정선문화원 최원희 사무국장의 정선 남평리 토방집짓기놀이의 고증 및 의의에 대하여 각각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박임용 정선군향토사연구회장, 전주룡 남평리 민속놀이전승보전회장, 윤종국 남평리 1리 이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정선 사람들은 과거 산간오지에 땅을 일구며 고단한 삶을 살아왔지만 한편으로 이를 극복하고 승화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정선 남평리는 정선에서는 드문 넓고 비옥한 토



지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상부상조하며 화목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유지해와 다양한 민속놀이가 전해져 온다.

그 중 토방집 짓기 놀이는 대표적인 남평마을의 민속놀이로 정선 산간지방의 전통가옥인 토방집은 통나무와 진흙으로 만들었으며, 적설량이 많은 지형에 알맞고 산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쉬운 고장의 특성을 살린 가옥이다.

예로부터 남평리 주민들은 토방집 짓는 과정을 놀이로 만들어 지역 주

거 문화의 맥을 잇고 마을 주민들의 협동심을 고양시켜 상부상조하는 마을 축제의 장을 만들었으며, 이는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노동요, 아리랑, 농악으로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전통 복합 민속예술이다.

정선문화원에서는 남평리 토방집 짓기 놀이에 대한 학술대회를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 옛 우리 조상들의 우수한 지혜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수기자

국기원 행정부원장에 김무천 이사 선임

국기원 행정부원장에 김무천 이사가 선임됐다.

국기원은 6월 11일 오후 2시 전라북도 무주군에 소재한 태권도원의 명인관 내 일여회에서 재직이사 21명 중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행정부원장에 김무천 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김무천 선임 행정부원장(1957년생)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1980년대 나이지리아 정부과거사범으로 활동하며 태권도 보급을 위해 헌신했고, 대한태권도협회 운영부장, 사무처장, 이사 등을 지낸 뒤 2019년 10월부터 국기원 이사를 맡고 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행정부원장은 이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재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1년이다.

또한 이사회는 선거인단 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



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70명 이상(최대 75명)으로 구성했던 선거인단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다.

결원이 발생해 이사를 보전할 경우 '이사추천위원회'가 아닌 이사장이 원장과 협의해 이사 후보자를 복수로 이사회에 추천, 재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

의 위원 수는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감사의 추천 권한을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했다.

또, 임원의 임기 중 보선된 이사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와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기원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 원장,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고나 궤위로 인해 이사

장, 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 외에는 수행할 수 없었지만 이사회 동의는 없을 경우에는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사회는 각종 고소 사건(5건)과 피고소 사건(4건)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법률비용 등에 대해 이사, 감사, 자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에 사건의 청구 선별 권한을 위임한 뒤 방안이 마련되면 이사장과 원장에게 보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 12일 '2021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정관 개정안이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서 이사회 해의 거주 및 체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으로 이사회 출석이 불가할 경우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워크숍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승희/기자

인천시교육청, 인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대비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교육부 시범사업교 선정



인 공동교육 거점센터)가 각각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기술을 교육과정과 접목 운영함으로써 고교교육 혁신 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에듀테크 선도고교로 선정된 인천상정고등학교는 ▶학교 내 교육기술 기반 지능형 교육체제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 학습 관리시스템(LMS) 등 활용 교무 학사행정 간소화 ▶공기관리 등 사물인터넷, 지능형폐쇄회로 CCTV로 학생 건강관리와 학생 안전 강화 등을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 체제 혁신 ▶수업의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디지털교과서와 인공지능 활용 학습지원 ▶메타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 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정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에 인천상정고등학교(에듀테크 선도고교)와 인천에일고등학교(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각각 선정

동 지원 등 변화된 교육 현장을 에듀테크 기술과 접목하는 선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온라인 공동교육거점센터를 통해 인천 G-T고교학점제 선도시구 응진군, 강화군 10개교의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2020년에 온라인 공동교육거점센터로 선정된 선인고등학교와 이번에 선정된 인천에일고등학교는 도서 지역, 구도심 등 교육취약지역 화원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교원 미배치로 개설 불가한 일반 및 진로선택 교과를 정규시간 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에듀테크 솔루션 활용 과정형 평가, 온라인 학교 간 공동평가 등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거점 역

할을 수행하여 인천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에듀테크를 접목한 고교학점제 운영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 노력"이라며 "디지털교육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 고교학점제 지원팀을 신설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인천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은 에듀테크와 고교학점제가 결합한 미래형 고등학교 모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남/기자

노범수 전성시대! 5번째 태백장사 등극



태백장은 바야흐로 노범수의 전성시대다.

지난 12일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문화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1 예천단오장사씨름대회' 태백장사(80kg 이하) 결선전(5전 3선승제)에서 노범수(울주군청)가 안해용(구미시청)에게 3-0으로 손쉽게 승리하며 생애 5번째 태백장사에 등극했다.

이로써 노범수는 금강장사 1회를 포함하여 개인 통산 6번째(20 영월, 20 평창(3차), 20 평창(4차) 20 안산, 21 해남, 21 단오) 장사 타이틀을 차지하며 다시 한 번 모래판 위의 강자임을 증명했다.

노범수는 16강전에서 문기택(수원시청)을 2-1로, 8강에서 유환철(용인시청)을 2-0으로 눌렀으며, 준결승전에서는 라이벌이자 절친한 사이인 허선행(영암군민속씨름단)을 밀어치기과 발다리결기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매천초 선배이자 8강부터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결승까지 올라온 안해용과의 대결이었다. 첫 번째 판 노범수는 주심 신호 전 공격으로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시작 4초 만에 들배지기로 안해용을 쓰러뜨리며 먼저 한 점을 가져왔고 두 번째 판 역시 전광석화과 같은 공격으로 등체기를 성공시키며 2-0을 만들었다.

5번째 태백장사 타이틀까지는 단 한판. 마지막 세 번째 판 노범수가 다시 한 번 등체기로 안해용을 넘어뜨리며 최종스코어 3-0으로 결승전에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였다.

경기 후 노범수는 "오랜만에 경기장에 관중분들이 오셔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앞으로의 목표는 올해 남은 대회에서도 장사 등극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성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021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수상

지난 10일 성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펼쳐고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주어지는 상으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수여되는 포상이다.

성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청소년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꿈드림 이용 청소년들이 2020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청소년 부문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도 '서울시 시민상' 창의과학예술(소년상)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로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바른 배움터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축하의 말을 전하며, 청소년이 행복한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접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전용공간을 조성,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으로 이전 개소했다.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에 소재한 성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언제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문이 열려 있으며, 학업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고민은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원/기자



홍성군, 에너지 자립 섬 죽도 2021년 찾아가고 싶은 섬 선정

조용하고 느릿한 낭만 가득... '죽도' 록 다시 찾아가고 싶은 섬



전국최초 에너지 자립 섬이자 충남 홍성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죽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선정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의 섬을 대상으로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발표하고 있으며 홍성군의 죽도는 '쉬기 좋은 섬'으로 추천됐다.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죽도는 남당항에서 서쪽으로 2.7km가량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홍성 유일의 유인도로 29가구 58여명이 터를 잡고 살고 있다.

죽도의 명칭은 대나무가 많은 것에서 유래했다. 섬 주위에 참대나무가 많이 자생해 '대섬'이라고 불렸던 것을 지명의 한자표기에 따라 죽도라 부르게 되었다.

지명 그대로 섬을 둘러싼 대나무 사이로 1.270m 길이의 트레킹 코스를 걷다보면 홍성을 대표하는 역사인물인 한음은 선생과 최영 장군 그리고 김좌진 장군이 지키고 있는 웅관성 조망대, 동바지 조망대, 닭개비 조망대 등 3개의 조망대를 차례차례 만나게 된다. 조망대에 올라 울창한 죽도의 12개의 섬과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하다보면 어느새 내려앉은 붉은빛 서해의 명품 낙조에 육지의 피로는 눈 녹듯 사라진다.

이후 2016년 한화그룹과 죽도 신재생에너지 자립섬 구축사업을 통해 죽도는 전국최초 '에너지 자립섬'으로 재탄생했다. 마을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시스템(태양광, 풍력)과 ESS(전력저장장치)로 공급하는 녹색 친환경 섬이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없는 무공해 청정섬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와 달리 죽도에는 조용하지만 느릿한 낭만으로 가득하다. 자연이 주는 한적함 속에서 두 발의 자유를 느끼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한 파도소리를 벗 삼아 즐기는 해상낚시와 대나무 병풍 속 바다를 한눈에 바라보며 즐기는 캠핑은 오토 캠핑에서만 느낄 수 있는 휴식이다.

홍성군은 죽도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조성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등 죽도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주식 해양수산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홍성군 죽도 관광은 홍성군 해양관광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 죽도는 2020년 홍성군을 대표하는 12경에 포함된 섬으로 2012년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 2019년 해양수산부 '여름에 썬 타고 싶은 섬'사업에 선정되었다.

김원호/기자

진주시, 경남예고 학생들 '이건희 미술관' 진주 유치 동참

이건희 미술관 유치 염원 담은 종이화 2,000마리와 그림 염서 전달



경남예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이건희 미술관' 진주 유치에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경남예고 정중환 교장과 정다희 학생회장, 이민주 부회장은 조규일 진주시장과 권순기 이진희 미술관 진주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해달라며 '이건희 미술관 진주 유치를 위한 학생 280여 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종이화 2,000마리와 직접 그린 염서를 전달했다.'

정중환 교장은 "이건희 미술관 진주 유치는 우리 학생들은 물론 36만 진주시민과 333만 경남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며, "문화 분권을 통한 문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진희

미술관을 반드시 진주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진희 미술관 진주유치위원회 관순기 위원장은 "학업으로 바쁜 학생들이 시간을 쪼개어 만든 작품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과 소중한 정성이 담긴 종이화와 염서는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소중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 학생들의 간절한 염원과 바람이 담긴 종이화를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황희 장관께서는 '이건희 미술관이 우리 진주(晉州) 속에서 영동한 진주(珍珠)가 될 수 있도록 뜻깊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비즈니스북스,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 출간

비즈니스북스가 무자본으로 빠르게 수익을 거두는 스노볼 성장 공식을 다룬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를 출간했다.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는 20대에 자본도, 직원도 없이 매출 10억짜리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사업 천재' 라이언 대니얼 모건의 성공 노하우를 압축한 책이다. 그는 29세에 온라인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 '시어 스트렝스'를 창업해 매출 10억원을 넘겼고, 100억원이 넘는 금액에 지분을 매각해 하루아침에 평생 일하지 않고 살아가도 될 정도의 부자가 됐다. 이 모든 일은 직업을 고용하지 않고 이뤄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우연한 '대박'이 아니었다. 10년 이상 방황과 실패를 반복한 끝에 이뤄낸 결과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사업가가 되기까지 6년이 걸렸고, 매출 10억원을 만드는 공식을 구체화하는 데 또 1년이, 이를 실제로 사업에 적용해 1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실현하는 데 4년이 걸렸다고 한다. 오랜 시간 직접 시험하며 성공과 실패를 결정 짓

는 패턴이 있음을 알아냈고, 이를 통해 누구나 1년 만에 10억원 매출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개발했다.

1년에 10억을 버는 공식은 아주 간단하다. 3만원짜리 3~5종류의 제품을 하루 25~30개씩만 팔면 된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루에 제품당 최소 25개씩만 팔면 된다.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는 1년을 4개월씩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눠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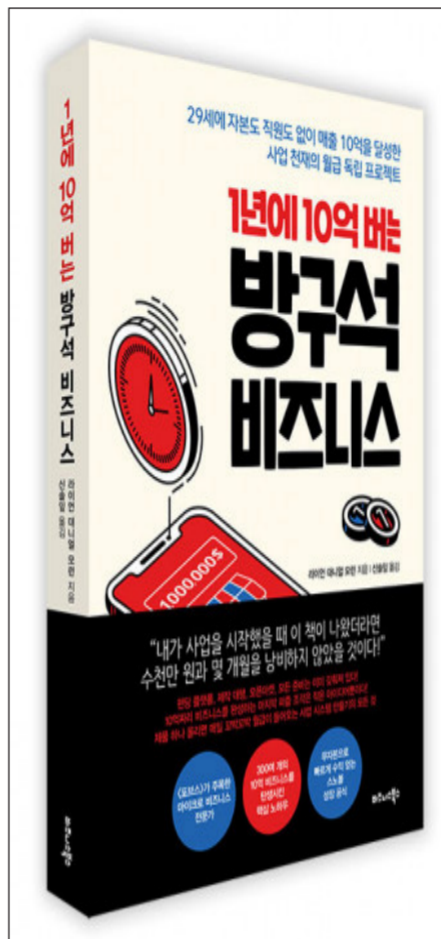
첫 4개월은 그라인드 단계(0~4개월)다. 판매할 제품을 정하고 단 한 개만 팔면 성공이다. 두 번째는 그로스 단계(5~8개월)로 첫 제품을 25개씩 꾸준히 판매하는 것이 목표다. 마지막 골드 단계(9~12개월)에서는 제품 종류를 늘리고, 스노볼 효과를 일으켜 매출 10억원을 달성한다. 각 단계 목표를 훌륭하게 이뤄낸 여러 사업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저자는 온라인 사업가 커뮤니티를

만들어 자신의 사업 성공 공식을 공유했고, 실제로 300명 이상이 매출 10억원짜리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을 지켜봤다. 컴퓨터실에 숨어 지내던 왕따로 자존감이 낮았던 저자를 비롯해 아이 병원비로 빚에 허덕이다 신경 이상으로 오랫동안 다리마저 못 쓰게 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다가 해고 위기에 처한 간호사, 한 번도 성공해본 적 없던 실패한 사업가 등 사업에 특별한 재능도, 자본도, 직원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출 10억원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책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는 초보 사업가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에게 무엇을 팔지, 어떻게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가격을 결정하는지, 고객과 관계를 맺으며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사업의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세계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매출 10억원을 올리는 사업가가 되도록 돕는 최고의 가이드가 될 것이다.

전순희/기자



예산군,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문화보물선 만나러 가자!”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다채로운 문화기획공연 펼쳐!

예산군은 오는 6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주간에 예산시네마 문화광장을 비롯한 예산을 일원에서 '2021년 예산군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군과 예산문화원이 협업해 '문화 보물선을 만나러 가자!'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군은 그동안 주민참여형 플랫폼인 '축제기획학교'와 '문화예술동지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발굴된 문화예술창작 커뮤니티에서 지역민과 함께 지역 문화 자원을 공연과 전시, 체험 등 기획공연에 담아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펼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군은 오는 6월 26일 예산시내마 앞 문화광장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기획공연으로 정통국악과 퓨전의 어울림마당인 '풍류한마당 위드인 국악'을 진행한다.

이날 공연은 지역 예술단체인 '예산군국악인협회'의 전통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퓨전국악그룹인 '가야해'와 '뮤르', 국악퍼포먼스 그룹인 '사맛디'가 출연해 전통과 퓨전을 넘나드는 신명나는 놀이 한마당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연장 주변에서는 '나무자 놀자'라는 주제로 미니순대 만들기 및 장승체형 등 전통문화 체험이 상시 무료 운영될 예정이며, 체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간당 30명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또한 마을별 기획전시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인 리얼장터, 핸드메이드 공예품 전시 판매장인 감성프리마켓 등을 운영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군은 행사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불만사항에 대해 향후 계획 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행사장 방문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역행사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코로나19 대응한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별 사전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다. 아울러 행사 당일에는 운영본부 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역부스를 마련해 주기적인 행사장 소독과 출입자 통제, 발열 체크, 전자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과 지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문화백신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생활 속 거리문화 공연으로 자리매김해 다양한 문화에 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10월까지 '학씨머 버블파티', '문화난장공서트', '생활문화축전', '이색놀이마당' 등 4회에 걸친 특색있는 기획행사를 준비 중이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연계한 17개 문화행사를 추진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인천시, “나무가 들려주는 인천이야기” 전시 개최

6월 22일 ~ 8월 31일까지 (71일간), 제물포구락부 전시



인천광역시에서는 근대문화유산 가치 재창조를 위한 공간 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물포구락부(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7호)에서 제물포구락부 120주년 및 인천시민애집 개관기념 특별전 "나무가 들려주는 인천이야기"를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7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물포구락부'는 인천시 문화유산 활용정책 1호 공간이자 자주적 개항의 상징적 서사 공간이다.

이번 전시가 시작되는 6월 22일은 제물포구락부 건축 1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며 올해 '인천직할시 승격 40주년'과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옛 송학동 시장관사를 인천시민 애집으로 개관하는 기념의 특별 전시로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올해 120주년을 맞은 제물포구락부는 서울 정동에 건설됐던 정동구락부(1894)보다 3년이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사교클럽이었으며 처음에는 중구 관동1가의 목조 단층 건물에서 출발했다가 1901년(6월22일) 지금의 자유공원 기슭에 지상 2층의 벽돌조 건물로 지어 옮겨왔다.

설계자는 러시아인 사바틴(Sabatini)으로 제물포구락부 외에도 인천 해관 청사, 세창양행 숙사, 러시아 영사관, 각국공원, 서울의 순탁 호텔, 독립문과 덕수궁의 양관(중명전 등)을 설계했던 인물이다.

이번 전시의 테마인 나무는 인간이 탄생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 땅에 존재했으며 나무를 빼놓고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신선한 나무 이야기가 깊이 자리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인천은 선사시대부터 삶의 터전이었던 유구한 역사의 땅이다. 그만큼 제자리에서 묵묵히 시간을 담아가며 생존하고 번영하는 나무들이 많다. 범인양요, 신미양요의 포탄을 이겨낸 강화도 초지진 소나무, 개항기 역사를 오롯이 지켜본 응봉산 플라타너스, 인천상륙작전 당시 함포의 집중포화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여덟 그루의 월미도 나무, 800여 년 동안 우람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수동 은행나무 등이 바로 그런 나무들이다.

"나무가 들려주는 인천이야기"는 나무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나무와 인천의 역사, 나무와 책, 나무와 미래, 나무와 인문학 등 제물포구락부만의 공간성을 살려 단순한 2차원적 전시가 아니라 사진, 영상, 음향,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하여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나무가 지켜보았을 인천 근현대사의 아픔과 치유 과정을 통해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공생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나무는 개항시기(1884년 추정) 대한제국 시절 응봉산 각국공원(현 자유공원)이 조성될 당시 식재된 우리나라 최초

의 플라타너스로 현재 인천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개항기 인천의 역사와 함께 인천상륙작전에도 곳곳하게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생태적의미가 인정된 나무만 만개 인천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강진택 박사 가 라이더(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로 촬영, 이를 통해 얻은 3차원 정보로 플라타너스의 근원, 흉고직경과 나무의 높이, 폭 등의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자료와 영상이 전시된다.

전시 관람은 제물포구락부 1층과 2층에서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QR체크인을 통한 방문객 확인과 관람객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손 소독, 한 방향 관람과 안전거리 유지(2m) 등 확실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사전예약(홈페이지, 전화) 및 현장접수 등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본 전시는 '제물포구락부'가 주관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인천연구원, 월미도공원 관리사업소, 계명대 강관관 교수, 남이섬의 전시 협조로 진행되며 이밖에 전시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제물포구락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김중남/기자

한국도자재단, 공예가 육성 위해 1천만원 지원금, 창작 공간 제공

한국도자재단이 창작 공간과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2021 공방 입주형 창작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예가를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금속 및 유리공예 분야 전문 창작자로 10년 이내 학사 졸업자 중 최근 2년 이상 창작 활동을 지속한 공예가다. 모집 장르는 유리, 금속 등 2개 분야에서 1팀씩이다.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팀으로 신청하면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로 약 6팀을 선정하고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자가 결정된다.

최종 참여자는 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여주시 소재)에 마련된 창작 공간에서 내년 4월까지 활동

할 수 있다. 추후 평가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창작 지원금으로 1,000만원씩을 받으며, 이외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의 육성 프로그램 지원도 제공된다.

최근수/기자



광주광역시 복구, 코로나 블루 극복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

중장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 내 발코니 음악회 개최

광주시 복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청년 예술단체와 함께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여가활동이 줄어들던 지역 주민들이 창문 너머로 소소한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음악을 통해 주민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중·장년 1인 가구가 많은 각화주공, 두암주공2·4단지, 우산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재즈 공연을 선보였다.

오는 18일, 25일에도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향후 지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음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영구임대단지들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나주천연염색재단, '천연염색 상품 공모전' 개최

국내 유일·최대 규모, 8월 28일까지 작품 접수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8월 중 '아름다운 우리 한글'을 주제로 '천연염색 문화상품 공모전'을 연다.

재단은 오는 8월 9일부터 28일까지 '제16회 대한민국 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천연염색 분야 국내 유일·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공모전은 천연염색 디자이너 육성, 발굴에 따른 체계적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재단이 개최해오고 있다.

작품 규격은 평면의 경우 '180cm(가로) * 240cm(세로)' 입체는 210cm * 210cm * 210cm(높이) 이내다.

국내·외 이미 상품화됐거나 타인의 작품을 모방한 작품, 타 공모전 출품작, 미풍양속에 유해되는 작품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1명, 상금 500만원), 전라남도지사상(1명, 300만원), 나주시장상(2명, 각각 100만원)을 시상한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상(5명), 장려성, 특선, 입선자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0월 8일 한국천연염색 박물관에서 개최되며 이후 박물관 기획전시실에 수상·입선작들을 만날 수 있다.

제16회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

품대전은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주최,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후원한다.

자세한 정보(문의)는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왕식 재단상임이사는 "이번 공모전이 천연염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경기도, 24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온라인 설명회' 개최

울산시,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착수

오늘(16일), 업무협약 체결... 친환경 버스 개발 보급 확산 협력



경기도 내 소재한 A사는 가맹점수 88개의 대규모 가맹본부였으나 지난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매출액을 비롯해 중요한 재무 현황 정보를 누락해 신고했다. 이에 A사는 '의무 미이행'으로 직권 취소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

게 됐다. 경기도가 A사처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본부 창업 희망자를 위해 6월 24일 오후 2~3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담았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재무 현황 등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오는 11월부터 일명 '1+1 제도'가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

안이 시행, 법 시행 이전 정보공개서 등록하려는 가맹본부 창업자들의 문의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1+1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도는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정보공개서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여성·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창업 희망자 중 향후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한다면 강의를 신청할 수 있고 31개 시·군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권,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의 창업교육수강생에게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22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속 방법은 신청자에게 전자메일 및 문자로 안내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애 경기도 공정국장은 "가맹점 모집과 가맹점 희망자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수인데, 관련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다"며 "가맹본부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공개서 심사를 원활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도내 가맹점 수는 약 5만5,000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약 22만9,00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최근수기자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6월 16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친환경 버스 보급 확산을 통한 세계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했다. 참여 기관은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권수영), 에이펙(대표 남상은), 엔지브이아이(대표 정수영), 케이에이알(대표 최성재), 성산브이씨씨(대표 김인호), 오토렉스(대표 박동찬), 서울버스(대표 조준서), 차파트너스(대표 차종현) 등 9개 기관이다. 업무 협약에 따르면, 울산시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지원, 울산테크노파크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에 따른 사업관리 및 운영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 자동차 기업(에이펙, 엔지브이아이, 케이에이알, 성산브이씨씨, 오토렉스)은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기술 개발을, 수요기업(서울버스, 차파트너스)은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실증 및 보급 확산에 나선다.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은 오는 2024

년까지 3년 동안 총 23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된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배터리에 저장하고 배터리의 전기를 통해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다. 개발 및 실증이 완료되면 울산에서 생산되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의 수도권 보급 및 확산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기업인 서울버스 및 차파트너스는 수도권에서 약 1,10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버스는 연간 10% 정도의 노후차량 대체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는 자동차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자동차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전국 최초로 15일형 '자율주행 디젤 버스'를 개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영 허가를 받아 실증을 마쳤고 현재 '자율주행 전기버스'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김기현기자

경북 우수 친환경농산물, 초록마을 입점 품평회 개최

과일·채소류... 국내 친환경농산물 대표 브랜드 초록마을 입점 예정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동락관에서 도내 생산되는 우수 친환경농산물을 국내 친환경농산물 대표 브랜드인 ㈜초록마을 입점을 위한 품평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초록마을은 일반농산물 보다 재배하기에 기술력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어 생산비가 높은데 비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친환경농산물(무농약·유기농)을 농가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착안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품평회는 경북 친환경농산물 중 제철 과일류·채소류 등 27개 업체에서 출품한 농산물을 직접 ㈜초록마을 구매담당자(MD) 6명이 업체별 상품을 생산과정, 인증현황, 상품구성 등을 평가하여 1차 선정을 하고, 이

후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입점이 확정된다. 이렇게 경북도 친환경농산물만이 특별한 품평회를 갖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17일 ㈜초록마을과 경북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후 속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업무협약 후 올해 5월말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초록마을이 보유한 전국 396개 매장 전점을 통해 경북 친환경농산물 특별판매 기획전을 추진한 결과 사과, 포도, 참외 등 30억 원의 높은 판매 실적을 올렸다. 2020년 12말 현재 경북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4,125호, 면적은 3,817ha, 출하량은 92,848톤이며, 2010년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이후 84%나 감소한 친환경 인증면적이 10년 만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번 호기에 발맞춰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는 물론 판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



이다. 김중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초록마을에서 경북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만을 위해 입점 품평회를 마련해 준데 대하여 감사사를 표하며, 경북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친환경농산

물이 대형 유통업체에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이번 품평회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전북도, 주꾸미 자원회복에 나선다!

전라남도, 고품질 쌀 유통 신청사업 모두 선정



전라북도도 자체 생산한 어린 주꾸미 35만 마리를 도내 연안에 무상으로 방류한다. 15일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연안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직접 생산한 어린 주꾸미 35만 마리를 도내 연안에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무상 방류한다. 이번 방류하는 어린 주꾸미는 실내수조에 인공 산란장을 조성하여 포란된 어미를 건강하게 사육관리 하면서, 산란 유도 후 약 40~50일간 어미 및 수질관리를 통해 전장 1cm 내외까지 건강하게(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완료) 성장한 우량종자이다. 그동안 연구소에서는 2003년부터 3년간 주꾸미 대량 종자생산 시험 연구를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꾸미 생산-방류를 시작했다. 작년까지 총 5,235천 마리를 도내 연안에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승일기자

주꾸미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과 DHA 등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특히, 봄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전라북도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서해안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주꾸미 종자 방류를 통해서 주꾸미 자원량 회복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향후 감소 추세에 있는 품종과 경제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품종에 대해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연구소에서는 올해 5종 1,095만 마리의 바닷고기를 생산하여 도내 연안에 무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어린 꽃게 20만 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원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일기자

나주해남고흥보성장상 등 7개 사업 확정돼 국비 94억 원 확보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에 7개 시군의 통합RPC와 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 국비 9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결과 전남도는 국비 총지출액의 36%를 확보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 쌀 생산·유통 활성화와 함께 지역별 대표 브랜드 육성에도 탄력이 불고, 품질 고급화와 수확기 벼 확대 매입을 할 수 있게 돼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 사업은 ▲나주시 통합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과 '벼 건조저장시설', 2개 사업 ▲해남군 육천농협 '노후 RPC 집진시설 개보수'와 '따뜻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2개 사업 ▲고흥군 풍양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1개 사업 ▲보성군 통합RPC '노후 RPC 집진시설 개보수' 1개 사업 ▲장성군 통합RPC '노후 RPC 집진시설 개보수' 1개 사업 등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240억 원이다. 나주의 경우 통합RPC의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159억 원, 벼 건조저장시설에 24억 원 등 총 183억 원을 들여 산물벼 저장에 필요한 사일로, 건조기, 냉각장치 등을 설치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공모사업에 대비해 대상자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 지도를 강화했다. 특히 서



류현장 평가 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선정 방침을 바탕으로 개별 업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2022년 수확기 이전 사업 완료로 목표로 올해 인허가, 실시설계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전남 쌀 유통 활성화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매년 4~5개소를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답양·고흥·장흥·해남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만기자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제한형 139개+토론행 51개), 5,843억원을 요구하였다. 139개 제안형 사업은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589건의 제안을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되었으며, 51개 토론행 사업은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되었다.

전체 요구사항을 개관하면,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고,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분류된다. (생활밀착형)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되었고,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 현장 대응 교육 강화,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등 (식품안전) 배달음식점 주방공개(CCTV설치), 농수산물 유통길목 안전지킴이 등 (스마트행정)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 확대, 로봇·드론 등 4차 산업 활용 수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장애인) 자연휴양림 등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화, 무장애 관광지 조성 등 (저소득층)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청소년) 학생자살예방지원, 고위 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기

이·연·연

분류	사업수	금액	주요 사업
총계	190	5,843	
① 국민참여 예산	139	3,406	
안정형 예산 지원	20	1,865	- 교육·문화·스포츠·관광 분야 - 사회적기업 지원 - 청소년 지원 - 노인·장애인 지원
제한형 예산 지원	12	348	- 민생안정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 - 노인·장애인 지원
특정 예산 지원	11	200	- 교육·문화·스포츠·관광 분야 - 사회적기업 지원 - 노인·장애인 지원
생활밀착 예산	13	241	- 교육·문화·스포츠·관광 분야 - 사회적기업 지원 - 노인·장애인 지원
행정서비스 고도화	33	832	- 행정·민생 분야 - 디지털 행정
② 다량참여 예산 지원	41	1,537	
아동학대(위기관리지원)	14	652	- 아동학대 예방·지원 - 아동학대 예방·지원
저소득층 지원	4	335	- 지역·취약계층 지원
기타 취약계층 지원	23	350	- 취약계층 지원 - 노인·장애인 지원
③ 경제활력 제고	40	1,619	
기업 및 산업 지원	25	999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12	350	- 청년 일자리 지원 - 청년 일자리 지원
혁신성장 지원	3	74	- R&D 지원

